Weekly 공감
2011.07.20 NO.118
gonggam.korea.kr
KOICA
WORLD FRIENDS
국내로 해외로
커져가는 키움과 나눔 P31~46
긴급점검 깊어진 4대강… 올 여름 장마 이겨내다 P12~22
평창을 환경·흑자 올림픽으로… 국격이 올라간다 P24~30

gonggam.korea.kr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공모분야
① **카툰·만평**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사회 구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② **스토리만화·웹툰** G20세대 (G20세대의 좌충우돌 이야기)

공모대상 중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공모기간 2011년 6월 20일 ~ 8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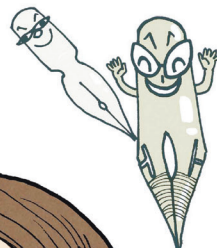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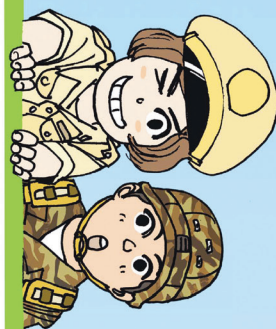
시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시상금 총 1,460만 원(대상 300만원)

제출자료 ①응모작품 ②응모지원서(작품당 1부, gonggam.korea.kr에서 다운로드)
- ❖ 컴퓨터로 작업할 경우 300dpi 이상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프린트 출력물로 제출
- ❖ 출품 수 제한은 없으며, 개인 및 팀(4인 이하) 가능

제출방법
- ❖ **방문접수** : 2011년 8월 11~12일(10:00~16:00)
-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11년 8월 12일) 소인 유효
- ❖ **접　　수**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과 만화공모전 담당자

문　　의 홍보콘텐츠과(02-3704-9987)

※ 자세한 내용은 공감 코리아(www.korea.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에 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만화가협회

대통령 '더반 3분 연설'의 효과

찰스 테일러
美 빌라노바대 석좌교수 · 경영학
전 미국광고학회 회장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박사
소렐리상 · 슬레이터상 수상

올여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필자는 마케팅 전문가 입장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의 프레젠테이션 경쟁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유치 경쟁은 평창과 독일 뮌헨의 대결이 될 것이고 승자가 되기 위한 관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호기심을 갖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유치 경쟁에 참가한 국가들에는 오로지 45분간의 발표 시간과 15분 동안의 질문 시간만이 주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유치위원회는 프레젠테이션 팀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최고의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3분 동안 이어진 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IOC 위원들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중요한 연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필자는 이 점이 IOC 위원들에게 높이 평가됐다고 확신한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이는 연설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헌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당신들에게 전폭적인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한다." 이 말은 한국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고 매우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국가 지도자로부터 이런 약속을 듣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신뢰를 전달한다. 그것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의미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국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IOC 위원들에게 크고 분명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3분 영어 연설은 결정적이었다. IOC 위원들은 외국어로 중요한 연설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이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헌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국가 지도자의 이런 약속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신뢰를 전달한다.

또한 그의 연설은 유쾌하면서도 권위 있는 인상을 동시에 주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한국이 올림픽 공동체에 '보답'하겠다는 그의 말 또한 공감을 얻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분명하게 IOC 위원들의 지지를 요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후보나 명분에 지지자가 돼주길 요구받는 걸 좋아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행한 매우 현명한 일이었다.

결과 발표가 난 다음 날 아침 필자는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했다. 필자의 열 살짜리 아들 미첼은 우리가 평창에서 열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보러 갈 수 있는지 물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 경기들이 평생 동안 기억될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역사적 순간에 한국 사람들에게 큰 축하를 전하고 싶다. 조양호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피겨 스타 김연아 선수, 이건희 IOC 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긴 과정 속에서 인내심 있게 견뎌 이뤄낸 이 훌륭한 일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

Contents

NO.118 2011.07.20 통권 219호

31

기획특집

어려운 곳에 손 내미는 나눔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이라도 공기업은 공익을 우선 추구한다. 이익은 그 다음의 일이다. 최근엔 공공기관의 '공정 DNA'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정사회 구현의 들머리에 선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채용을 늘리며 사회공헌활동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표지 이야기 떠오르는 대륙 아프리카는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이다. 탤런트 박상원, 정애리씨가 에티오피아의 빈민촌에서 직접 소독약을 치며 봉사활동을 한 것은 바로 그런 '나눔'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7.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06

12

5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21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민 모두의 승리!

"지난 12년간 국민 모두 고대해 오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한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두 번의 유치 실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철주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이 생겨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의 동계올림픽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강주찬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yes! 평창!

"강원도민으로서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창 특별기획으로 나온 〈위클리 공감〉 117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네요. 평창을 위해 뛴 사람들을 한명 한명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매우 유익했습니다. 모두가 응원하는 동계올림픽 소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아담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이 대통령의 '맞춤형 외교' 감동적

"평창!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맞춤형 외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존재를 알리고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국격을 높이는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더반에서 보여준 선진 대한민국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길 기대합니다."

전형옥 (충남 서천군 마산면)

태극권, 당장 오늘부터 수련!

"새로 연재하는 '명인 이찬과 함께하는 '30분 태극권'은 내용이 매우 유익해 냉장고에 붙여 뒀습니다. 오래 전부터 허리가 아파 고생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도 간단한 태극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수련해 튼튼한 허리와 탄력 있는 옆구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요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리라 다짐해 봅니다."

전예빈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세계유산 지킴이' 소식 반가워

"종묘부터 조선왕릉까지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키기 위해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단' 이 발족한 소식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뽑힌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며 세계적인 것'이란 걸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본인들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최동진 (광주시 서구 양동)

이 기사, 아쉬워요

"해경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공감코리아 정책기자의 세상읽기'에서 독도를 지키는 해경 경비함에 관련된 기사를 써주셔서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통해 독도를 지키는 해경들의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과 독도를 지키는 심정도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정책기자단 분들의 탐방소감과 느낀 점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송혜림 (대학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용어를 좀 더 풀어 써주셨으면"

'영화 속 영웅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타운 3부작'을 보며 당시 미국 서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럼을 읽던 중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독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예시를 사용했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듯 합니다. **박상암 (목수, 전남 목포시 복만동)**

공감퍼즐

공정사회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에서 만나보세요!

알립니다

추억이 담긴 문화재 사진을 공모합니다

문화재청 50주년을 기념해 '문화재 사랑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수상작은 오는 9~10월 열릴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사진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 | 8월 26일까지
공모 내용 | 문화재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과 설명(촬영일시 및 장소, 문화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에 얽힌 추억을 1백자 내외로 서술)
응모 방법 | 온라인 : 사진(2MB 이상 5MB 이하 jpg 파일)을 설명과 함께 공모전 사이트(www.cha.go.kr/contest)에 게재
우편 : 사진 크기는 제한 없으며 사진 설명과 함께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대변인실
지원 혜택 | 상 구분 없이 50편 선정(상품권 15만원씩 증정)
문화재청 대변인실 www.cha.go.kr ☎ 042-481-4675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제4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실현, 육아·보육·나눔·봉사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신청 기간 | 9월 30일까지
공모 내용 | 경제, 사회 · 복지, 교육 · 문화, 안전 분야 등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신청 방법 |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의 '참여마당'-'생활공감 정책제안' 코너에서 공모 포스터 속 '하트' 모양을 누른 후 신청서 작성
시상 내역 | 대통령상 외 상금 수여
행정안전부 공감정책과 www.mopas.go.kr ☎ 02-2100-1758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2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로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에서 결의하고 유비를 섬겼던 용장이죠.
4. 몸집이 거대한 가상의 고릴라. 영화의 제목.
6. 시속 약 2백 킬로미터로 운행되는 철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인천~평창 간 OOOO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8.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9. 최근 프랑스 파리 공연에 이어 일본에서 낸 데뷔 음반이 '골드앨범'에 선정되면서 K팝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 남성 5인조 그룹.

세 로

1. 목이 긴 여성용 양말.
2.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해 갖추는 것.
3. 여러 날 동안 비가 계속해서 오는 시기.
5. 남아공, 에티오피아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국 중의 하나죠. OO민주공화국.
7.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K팝 가수들의 해외 공연장은 열광의 OOO였다."

〈Weekly 공감〉 116호(7월 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너비아니 **4** 반값 **5** 인디밴드 **6** 물가 **7** 시발
세로 **1** 에너지 **3** 아이디 **4** 반드시 **5** 인가 **8** 발효

〈Weekly 공감〉 11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영신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김정회 ·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김효자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윤지현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최은혜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 중이던 7월 9일 아디스아바바의 빈민촌인 케베나 마을에서 방역활동 등 자원봉사를 했다.

'나눔과 봉사'로 외교 새 지평 열다

아프리카 순방 마친 이명박 대통령 "겸손한 마음으로 경제자립 돕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11일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에티오피아를 순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외교 기간 중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빈민촌을 찾아 봉사활동도 했다.

에티오피아의 시골마을 두라메에 사는 소년 멜카무 타게세(8세)에게는 2009년부터 후원자가 생겼다.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을 통해 후원자가 보내 주는 돈은 흙바닥과 진흙벽, 양철지붕으로 이어진 집에서 온 가족이 한 달에 1만8천원으로 살아가는 멜카무에게는 작지 않은 도움이었다.

멜카무는 7월 9일 아버지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후원자를 만났다. 그의 후원자는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 소년은 아시아 동쪽의 먼 나라에서 온 후원자에게 "커서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영부인은 소년에게 "씩씩하고 훌륭하게 자라 꼭 꿈을 이루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4대 빈곤지역 중 하나인 케베나 마을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마을 공동화장실에 직접 소독약을 치면서 방역활동을 했다. 마을에 사는 6·25참전용사 후손의 집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우리나라 교회가 설립한 병원과 KOICA 의료진이 나가 있는 라스데스타병원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자들을 위로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봉사활동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 내외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봉사단원들과 함께 아디스아바바에서 서쪽으로 1시간 15분가량 떨어진 가난한 마을 가레아레라 마을을 찾았다. 마을에서는 공용화장실·마을회관 신축, 미완성 보건소 완공, 우물 주변 울타리 개보수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마치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 한국의 농촌마을 같은 분위기였다.

빌 게이츠의 권유로 에티오피아서 자원봉사

건설현장을 누비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였을까? 푸른 점퍼 차림의 이명박 대통령은 "봉사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자와 장갑, 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 곡괭이로 건물 외벽을 뜯어내면서 작업을 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곡괭이질을 하면서 "으샤으샤" 하는 기합을 넣는가 하면, "내가 완전 십장(작업반장)이다, 십장!"이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주위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작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빌 게이츠 빌&멜린다게이츠재단 회장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에티오피아 빈곤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온 빌 게이츠 회장은 "세계 모든 정상들이 자원 있는 국가만 가는데, 이번에 꼭 자원 없이도 잘살겠다고 하는 나라도 방문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프리카 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권유했었다.

올해는 에티오피아군 한국전 참전 60주년이 되는 해.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오전 한국전 참전공원을 방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7월 9일 자원봉사 활동을 나간 케베나 마을 어린이들 앞에서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조선DB

김윤옥 여사도 7월 10일 오전 가레아레라 마을에서 마을 공동수도 개보수 등 봉사활동을 했다.

1

문해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1백여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다과를 마련해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한국전 참전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한국에서 직업훈련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멜레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회장은 “한국이 오늘날 선진대국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뿌듯한 긍지를 느낀다”고 화답했다.

빈민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 중 기회 있을 때마다 1인당 GDP가 3백50달러(2010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개발경험”

7월 10일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개발경험공유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공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빠른 경제성장에서 축적된 한국의 개발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멜레스 제나위 총리가 아메드 수피안 재정경제개발장관, 느웨이 게브레압 경제수석보좌관 등 각료급 인사 30여명을 이끌고 참석했다. 멜레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 모델이며,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뿐 아니라, 시행착오의 경험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원동 KDI 교수(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운용과 경제기획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는 산하 23개 국책연구원에 축적된 경제개발 관련 각종 경험과 데이터 생산능력을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 및 에티오피아경제발전연구소(EDRI)와 공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열린 ‘한·에티오피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은 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과 자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에티오피아의 농업개발, 수출산업 육성, 광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 이명박 대통령은 7월 8일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 7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공원을 방문,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에티오피아군 참전용사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3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7월 9일 우리나라 한 교회의 후원으로 건립된 병원을 방문해 뇌수종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인 소년 아시나피(6살)군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설을 통해 자신의 인생역정과 한국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에티오피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고 당부했다.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8일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와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인 '성장과 변화 계획'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농업기술과 농업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이날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협정 및 EDCF기본합의서, 희유금속 탐사 및 개발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 앞서 방문했던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월 7일 열린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두 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FDCF)기본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등에 서명했다. 양국 관계기관들도 SOC건설·자원개발연계협력합의서 및 석유개발공동조사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궁에서 열린 카빌라 콩고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은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 발 앞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한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재건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면서도 "한국은 아프리카의 자원개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듯이 아프리카가 경제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 후인 7월 13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비록 중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늦긴 했지만 다른 나라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멜레스 에티오피아 총리가 "선진국은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수모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개도국 경제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여성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

재취업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사담당자 등 2백여명 청와대로 초청

경기도 안산에 사는 유지연(36)씨는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자다. 지난 2000년 한국으로 시집온 유씨는 한동안 낯선 언어와 문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유지연'이란 한글 이름도 새로 얻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유씨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안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내외가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여성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각계 여성 2백여명을 초청해 격려하고 있다.

유씨가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것은 안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덕분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 중으로, 전국에 90개소가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17만명을 취업시키는 등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유씨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설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1기)을 수료했다. 이후 실습과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이 병원 종합검진센터와 대외협력팀 소속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몽골어로 된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몽골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이제 유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4백명 몽골인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사람이다.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우수취업사례 소개도

유지연씨의 사례는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우수취업사례로 소개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내외는 이날 오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했다. 유씨 역시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경내를 둘러봤다.

'여성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청와대 행사에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취업설계사 등 관련 종사자, 우수사례로 소개된 유지연씨와 같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사담당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맘마미아 밴드는 이날 행사의 흥을 돋웠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으로 여성고용을 늘린 여성친화기업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충북 진천에서 포장김치 등을 생산하는 동원F&B의 얘기다. 여성가족부 박현숙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군 지역에 있는 동원F&B는 인력수급이 어려웠는데 여성들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9~16시로 단축하자 출근율이 98퍼센트에 달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처음 개소된 2009년 11월에도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기지역 센터를 찾아 여성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G

글·이동훈 기자

'고엽제 매립' 캠프 캐럴 다이옥신 오염 조사

"과학적 접근과 소통이 해결책"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시작된 캠프 캐럴 고엽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정부와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에 따른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 조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물론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공동조사단이 조속히 구성되어 환경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공동조사 과정에서 미군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환경조사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캠프 캐럴 공동조사는 그동안 경험했던 유해 중금속이나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아닌, 대표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유해물질이며 특히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최초로 확인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토양·지하수 오염 분석 및 전문가 해석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과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 해석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조선DB

지난 7월 8일 경북 왜관 캠프 캐럴 미군기지에서 미육군공병단이 헬기장 주변에서 토양 시료채취 작업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그간 우리는 정부 주도로 환경기술 투자를 확대한 결과, 신규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이해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토양환경 분야 지중 원격조사 및 정화기술에서 상용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환경기술이나 환경관리역량에서 주요 환경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상태다. 따라서, 조사의 전 과정에 우리의 환경분야 기술력을 믿고, 과학적 접근방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조사가 중요

둘째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다. 과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환경문제 해결에 국민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과 비교해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기술은 부족한 편이다.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주변 환경오염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되었던 초기에 기지 주변지역은 물론 전국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일반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더라면 기지 주변 주민이 불필요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70년대 고엽제가 매립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약 4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며칠, 몇 주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사결과를 당장 손에 쥐어주기를 재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조사단은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고 국민은 공동조사단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에 귀 기울이고 존중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공동조사는 일반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G

글·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전문위원)

광주 북구 동북동 상공에서 내려다본 영산강의 준설 전후 모습. 영산강 등 4대강에서의 강바닥 준설로 이번 장마기간 중 예년의 몇 배가 넘는 호우가 내렸어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강바닥 준설 일등공신… "홍수 걱정 끝"

20일간 연평균 강수량 절반 쏟아져도 홍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져

지난 6월 22일 시작된 장마가 20일가량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는 예년보다 홍수위가 낮아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강바닥에 쌓여 자연스러운 물흐름을 막고 있던 퇴적물을 치운 치수(治水)의 효과를 보고 있다.

대단한 집중호우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6월 22일~7월 11일 사이 강수량을 기준으로 충북 충주에서는 8백12mm의 비가 내렸다. 연 강수량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다.

충남 부여(7백35mm), 전북 군산(7백44mm) 등지에서도 7백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천2백45mm란 점을 놓고 볼 때 엄청난 비다.

이 지역들뿐 아니다. 대전(54퍼센트)과 충남 부여(54퍼센트), 강원도 원주(57퍼센트), 경기도 양평(52퍼센트), 충북 천안(53퍼센트) 등지에서도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최근 20여일 동안 쏟아졌다. 이처럼 예년과 비교해 많은 강우량이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나 4대강 홍수위는 과거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4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구간에서 측정한 4대강의 홍수위는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와 비교해 ▲한강(여주) 2.54미터 ▲낙동강(상주) 3.78미터 ▲금강(연기) 3.36미터 ▲영산강(나주) 2.13미터가량 홍수위가 낮아졌다.

본류에 이어 지류도 홍수위 함께 낮아져

4대강 본류의 홍수위가 이처럼 낮아짐에 따라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졌다. 한강의 지류인 섬강은 약 0.5미터,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은 약 1.3미터,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은 약 0.5미터,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은 약 0.6미터 홍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따라 4대강 유역에서는 가옥·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 주로 전북, 충남 서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준설에 따른 홍수위 저하 효과

하천	지점명(행정구역)	보와의 거리	수위-유량관계 변동
한강	여주(여주군)	강천보 하류 4.7㎞ 여주보 상류 5.1㎞	측정유량 6,344.5㎥/s 대비 수위 약 2.54m 저하
낙동강	낙동(상주시)	낙단보 하류 0.5㎞ 구미보 상류 17.9㎞	측정유량 4,892.8㎥/s 대비 수위 약 3.78m 저하
금강	금남(연기군)	금남보 상류 1.5㎞	측정유량 5,088.9㎥/s 대비 수위 약 3.36m 저하
영산강	나주(나주시)	승촌보 하류 4.1㎞ 죽산보 상류 15.0㎞	측정유량 1,481.8㎥/s 대비 수위 약 2.13m 저하

출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7월 7일 기준

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아 올해와 유사하게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가 내린 2006년과 비교하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적었다.

4대강의 홍수위가 낮아지고, 물 배수가 빨라져 4대강 주변에서 홍수피해가 미미한 것은 4대강 준설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3팀 김태원 사무관은 "올해 7월 초까지의 준설량을 반영한 수위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하도(강바닥) 준설에 따른 치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의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홍수위를 낮춰 큰 홍수 피해를 막아 준 가장 큰 공신으로 꼽히는 강바닥 준설은 지난 7월 7일을 기준으로 4대강에서 모두 4억3천만 세제곱미터의 퇴적토를 걷어내 전체 준설 목표량(4억5천6백만 세제곱미터)의 94퍼센트를 달성했다. 이는 15톤 트럭 2천8백60만대의 분량이다.

준설이 거의 마무리된 곳도 있다. 금강의 경우 4천2백89만1천 세제곱미터의 준설을 완료해 목표치의 99.9퍼센트를 완료했다. 한강에서는 4천5백58만2천 세제곱미터의 준설을 마쳤다. 이는 목표치의 97퍼센트. 낙동강은 3조1천7백79만5천 세제곱미터의 준설을 마쳤다. 이는 목표치의 93퍼센트다. 영산강의 경우 2천3백53만5천 세제곱미터의 준설을 마쳐 목표치의 89퍼센트를 끝냈다.

오염되고 퇴적물이 쌓여 스스로 복원할 능력을 상실한 4대강의 본모습을 되찾게 해주고자 시행된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대비·수자원확보·생태복원·수변공간 활용·지역발전 기여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아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현재 강별로 공사구간을 나눠 보(洑)와 하도준설 등 강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4대강살리기 본류 사업을 완료한다.

연내 본류사업 완료… 내년부터 지류사업 시작

보와 준설공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여러 목적 중 홍수대비·수자원확보 등 '치수(治水)'와 가장 밀접하다. 준설은 하천의 홍수소통 능력을 증대시켜 홍수 시 수위저하 효과를, 보는 홍수 시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김철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초 내린 비로 4대강살리기 낙동강 공사 현장인 경북 구미의 광역취수장 임시 물막이가 무너지고, 영산강 구간에서 수도관로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임시 물막이나 공사용 가설도로 등의 시설물 피해는 일종의 예측할 수 있는 피해라고 본다"며 4대강살리기의 치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4대강살리기가 잘 마무리돼 홍수피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전엔 마을회관 침수… 올핸 강변 밭도 안전

울퉁불퉁한 강바닥 준설 효과… 하루 300mm 비에도 끄떡없어

도도히 흐르는 한강은 생명의 물길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업 현장이기도 하다. 최근의 집중호우로 생명의 강이 재난의 강으로 변할 수 있는 위기를 맞았지만 연일 내린 비에도 한강은 평화로운 얼굴을 잃지 않았다. 한강 유역에서 가장 침수피해가 잦은 경기도 여주군도 올 장마철에 침수피해를 겪지 않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올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11일의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이포보 전경. 강 곳곳에서 물 흐름을 막고 있던 퇴적토가 준설되고 제방이 정비되어 장마가 시작돼 집중호우가 내렸어도 인근 농경지와 주택이 별다른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우리 동네 마을회관까지 침수가 됐죠. 그런데 올해는 강 바로 옆에 있는 밭도 침수가 안 됐어요."

남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의 윤선남(59) 이장은 올해 장마철의 '이상' 집중호우에도 굴암리는 침수피해를 겪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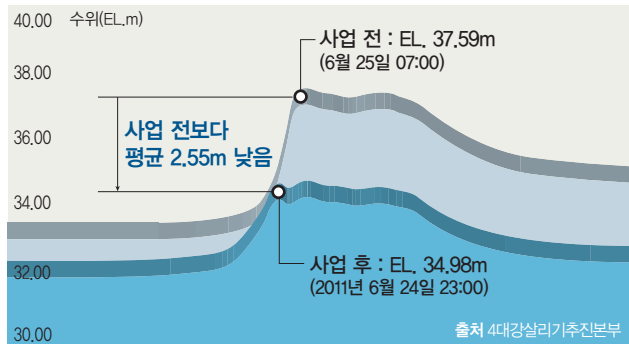
이곳에서 나고 자란 윤 이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강바닥에 심한 굴곡이 져 있었다"고 전했다. 골재 채취업자들이 강바닥을 파헤친 다음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고의부도를 내고 도망간 탓이란 게다. 윤 이장은 "과거 큰 나룻배가 다니던 남한강이 이곳 강천면에서 여주읍까지 짧은 구간도 작은 배가 강바닥에 닿아 못 다닐 지경"이었다고 강바닥 준설 전 상황을 전했다.

"강바닥이 심하게 굴곡지니 얕은 곳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비가 많이 오면 버드나무 몸통에 부유물들이 들러붙으면서 물흐름을 더욱 막아 2년에 한 번은 우리 마을의 마을회관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해 당해 왔습니다."

여주군 86명 어부들 곧 닥칠 '풍어가' 부푼 꿈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바닥 준설로 사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윤 이장은 "강바닥이 1미터는 고르게 낮아지면서 남한강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그리고 올해에도 침수피해를 겪지 않아 강 정비 효과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이장의 직업은 뜻밖에도 어부다. 그는 "여주군에만 어업허가

한강 사업 전-후 여주 수위 변화 (2011년 6월 홍수)

※ 올해 홍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후 현재(그래프 아래선)'와 '사업 전(그래프 윗선)'을 비교한 것. 상류댐 방류 상황까지 감안, 같은 홍수량에 따른 최고수위 기록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자가 86명"이라며 "4대강살리기 사업기간 동안 어업이 정지돼 당장은 형편이 어렵지만 앞으로 어업선이 다니기 편해지고 강물이 맑아지면 이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강천면 지역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에 따르면 7월 14일 현재까지 여주 지역에 내린 올해 누적 강우량은 1천mm가 넘는다. 이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1천2백45mm)의 80퍼센트에 이르는 수치.

강천보사업단 건설관리과 오상식 차장은 "특히 지난 6월 22일 이후 장마기간에는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배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7월 6일 이후 내린 비만 3백mm가 넘는데도 비의 규모에 비하면 침수 피해는 거의 없는 편이고 강의 홍수위도 예년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임시 물막이는 집중호우 때 무너지는 게 정상"

강천보사업단은 장마철 이전부터 삼합리에 있는 준설토 적치장의 사면을 정리하고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준설토가 다시 흘러내려 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왔다. 지난 4월 집중호우로 강천보 마무리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지만, 임시 물막이는 일정 수량 이상의 집중호우에는 인근 지역의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강천보건설단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또다시 쌓은 임시 물막이가 무너진 이후 강천보 공도교 공사와 통합관리센터 부지 정비작업 등 하천 밖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천보건설단이 맡고 있는 구간에서 88.5퍼센트의 공정이 완료됐다. 한강살리기 전체 평균 공정은 80퍼센트 진행됐다. 준설은 97퍼센트, 보는 92.5퍼센트, 소수력발전은 91.7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김춘석 여주군수

"상습 농경지 침수 해소로 농민 시름 덜었어요"

"상황별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큰 피해 없이 'Safe Yeoju(안전 여주)'를 만드는 데 군민과 공무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김춘석(61) 군수는 여주군의 홍수 대비태세를 이렇게 전했다.

여주는 남한강을 끼고 충주댐 하류에 있어 매년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을 우려하는 상습 침수지역. 지난해 9월 21일 추석 전날도 시간당 78.5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여주읍 버스터미널 앞이 침수되어 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도 있었다. 김 군수는 예산 30억원을 긴급 투입해 버스터미널 주변의 침수 원인을 해결하고 올 장마에 대비해 왔다.

김 군수는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 군이 역사에 등장한 지 1천5백여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준설 전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남한강 주변을 둘러보면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상이 잘 정리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설로 인해 남한강 수위가 1미터 이상 낮아졌습니다. 올해 같은 비가 예전에 왔으면 여주대교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을 텐데, 올해는 안심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여주 주민들도 준설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요.

남한강 본류의 정비에 따라 지류의 물 흐름도 좋아졌고, 이에 따라 상습 농경지 침수지역도 상당수 해소된 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홍수 때마다 여주 군민이 겪었던 걱정과 근심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만나는 주민들마다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걱정에서 해방됐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이 또 다른 도움됐다면.

지난 6월 말까지 한강살리기 사업 여주구간에 투입된 인력은 연인원 54만명 정도로, 이 중 여주 거주자는 약 8만8천명(17퍼센트)이었습니다. 현장 투입 장비도 굴삭기의 경우 7만7천여 대 중 여주 장비가 5천6백여 대(7퍼센트)였고, 덤프트럭은 18만9천여 대 중 여주 장비가 1만5천8백여 대(8퍼센트)였습니다. 또한 상주 근로자들이 여주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변 상권이 상당수 활성화되는 등 한강살리기 사업은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여주군의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요.

여주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사는 친환경 농촌을 건설하고,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과거 융성했던 '여주목(驪州牧)'의 영광을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한강 주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관광개발과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문화공간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은 86퍼센트를 넘어섰다. 하천준설은 모두 완료됐고, 보 공사도 98.5퍼센트 진행됐다.

이틀새 200mm 호우… "큰 피해 없었다"

배수로 정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상습 침수 농경지도 줄어

대전·충남 지역에 4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7월 12일 금강 유역 일대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10, 11일 이틀 동안 무려 2백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강' 금강살리기 사업구간을 긴급 점검했다.

중부지방엔 6월 말부터 7월 14일 현재까지 7백mm 이상의 비가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주민들도 "살면서 이렇게 단시간에 무섭게 쏟아지는 비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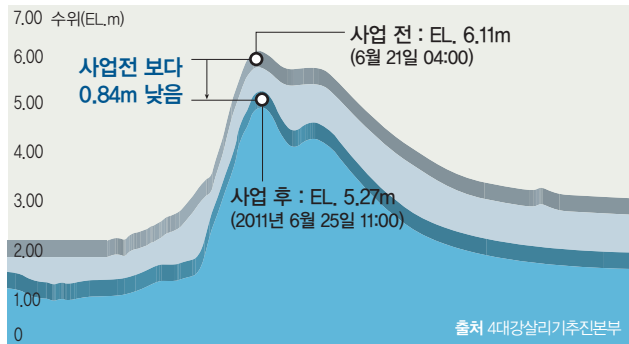
대전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안정환 홍보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금강 상류 쪽 사업구간은 생태공원이나 부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대청댐 하류 쪽은 강수량에 비해 아직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살리기 사업구간 일대는 착공 전 매년 장마철이면 농경지 침수 등이 반복돼 피해가 속출했던 곳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의 폭을 넓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장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비가 진행돼 왔다.

이번 장마에 대해 주민 정신영(66·부여군 부여읍)씨는 "이번 장맛비처럼 내렸다면 고수부지가 묻히기(침수되기) 십상인데 올해는 비교적 수위도 낮아졌고, 지천으로 흐르는 물도 비교적 잘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우 이후 농작물 피해에 대해 그는 "하천 범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으며 다만 연일 비가 오다 보니 하우스에서 키우는 멜론, 방울토마토, 오이 등이 도랑에 물이 안 빠져서 상품성에 문제가 생긴 정도"라고 설명했다.

준설 후 백제대교 수위 0.84미터 낮아져

박두순(69·공주시 우성면 평목리)씨도 "예전에는 대청댐을 방류하면 일부 농경지가 잠겼는데 올여름 비가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겠

금강 사업 전-후 백제(부여)대교 수위 변화 (2011년 6월 홍수)

※ 올해 홍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후 현재(그래프 아래선)'와 '사업 전(그래프 윗선)'을 비교한 것. 상류댐 방류 상황까지 감안, 같은 홍수량에 따른 최고수위 기록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지만, 농경지 침수 피해는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금강살리기 1, 2공구 구간 부근에 사는 임홍철(67·연기군 남면 양화리)씨 역시 "4대강 사업 진행으로 강이 넓어지고 폭이 깊어져서인지 강수량에 비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9일 국토해양부가 '2011년 6월까지의 준설량을 반영한 수위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강의 경우 4대강 사업 하도 준설 후 백제대교 수위가 0.84미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86퍼센트로 연내 완공 가능할듯

현장 관계자들은 "일부 위험요소를 발견,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한다. 금강5공구 심두식 감리단장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홍수에 취약한 지구는 배수로를 정리했고 시설물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시설물 정비에 힘쓰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5공구의 경우 현장에선 24시간 순찰조를 가동시켜 취약지구 점검에 힘쓰는 한편, 양배수장 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하천 밖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했다.

백제보가 있는 금강6공구 구간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20일 가물막이를 철수하고 공사 장비를 인근 고지대로 이동시키는 등 사전 준비로 피해를 막았다. "가물막이를 철수하지 않았다면 보 위쪽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는 게 금강6공구 조병훈 현장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장마로 상류에 있는 생활폐기물들이 떠내려와 이미 조성해놓은 생태공원을 오염시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6월 말 기준 공정률이 86퍼센트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생긴 피해 복구에 따라 완공 시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연내 완공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

글·박근희 기자

이용우 부여군수

"치수는 물론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은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 중 가장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이기도 한 이용우 부여군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이·치수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물길을 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의미와 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금강살리기 사업은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용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금강 뱃길 복원과 강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레저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백제보는 현재 98퍼센트 공정률을 보이며 9월 말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제보는 가동보 형식으로 유량조절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퇴적 토사 처리에 유리한 역할을 하며 주변 생태하천 습지 등을 조성하면 수질개선과 함께 홍수 발생 시 물을 저장해 하류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보와 준설 등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금강 권역에는 총 4천2백만 세제곱미터의 퇴적토를 준설했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준설로 인해 하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 홍수 조절 능력이 향상됐고 수위가 낮아진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퇴적토 준설로 제방 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있고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 안전도를 증대시켰습니다. 백제보는 6공구 지구의 마지막 보로 홍수 시 유량 조절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문 두 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퇴적 토사 처리에 효율적이며 이용수량 담수능력이 1천8백만 톤에 달해 집중호우 시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마나 태풍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여군의 경우 금강 하류에 있어 저지대 평야지대가 넓게 형성돼 있고 하우스 시설 농가가 많아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취약해 신속한 배수처리가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배수장 용량을 증설하고 제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강 본류와 연결된 각종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과 하천제방 붕괴 등 비상 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강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의 신 성장동력과 미래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 올해를 수상관광 선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10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생태와 관광, 그리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수변공간 특성화 전략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새로운 나루터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기존 황포돛배 운행 구간을 대폭 확대하고 금강역사 문화관, 농촌 관광단지, 수상정원 인공섬 조성사업 등 친환경 복합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치수 사업을 넘어서 강변에 흩어져 있는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복원해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과 제방 보강으로 영산강이 강해졌다

서울 남산의 절반 크기 퇴적토 퍼내 피해 거의 없어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폭우로 영산강 유역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부 영산강살리기 사업 구간에서는 강물이 일시적으로 관리수위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와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그래도 전남 나주 일대 영산강은 수십년간 쌓여 있던 퇴적토를 퍼낸 덕분에 지난해보다 오히려 수위가 내려갔다.

지난 7월 초부터 쏟아진 장맛비의 영향으로 영산강의 강물 역시 불어났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나주시 삼영동 인근 현장은 강물이 관리수위선 턱밑까지 다다랐다. 그나마 영산강 유역은 홍수피해가 덜한 편이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한 관계자도 "7월 12일 저녁에만 50mm 정도 비가 왔지만 수백mm씩 폭우가 쏟아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비가 덜 온 편"이라며 "그래도 강바닥을 준설해서 영산강 수위가 낮아진 것은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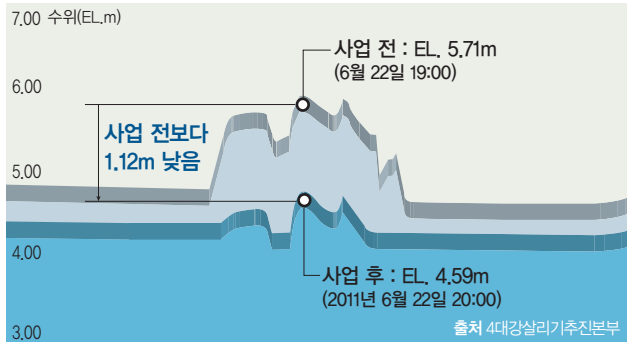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현재 80.1퍼센트의 공정을 보인다. 금강(86.4퍼센트)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그 중 2천6백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퍼내는 강바닥 준설은 이미 97퍼센트가 완료됐다. 또 영산강에 들어서는 2개의 보(승촌보·죽산보)는 99.8퍼센트의 공정으로 사실상 완공됐다. 자전거 도로(총 길이 2백9킬로미터)만 공정률 59퍼센트로 한창 진행 중이다.

주민 "예전엔 올해만큼 왔다면 수차례 침수"

특히 장마에 앞서 영산강 강바닥을 퍼낸 것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나주시 다시면에 사는 최정곤(59) 나주어민회장은 "예전 같으면 벌써 수차례 논이 침수됐을 텐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물이 찌지(넘치지) 않았다"며 "죽산보 인근에 있는 죽산리와 가흥리 등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비만 오면 침수를 당해 '물받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지난 6월 말 전남 나주시 영산강 승촌보 일대에서 여름철 폭우를 대비한 가물막이 작업이 한창이다.

영산강 사업 전-후 본동(광주) 수위 변화 (2011년 6월 홍수)

※ 올해 홍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후 현재(그래프 아래선)'와 '사업 전(그래프 윗선)'을 비교한 것. 상류댐 방류 상황까지 감안, 같은 홍수량에 따른 최고수위 기록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준설을 통해 강이 깊고 넓어지며 물 빠짐이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자료도 이를 증명한다. 영산강 일대의 지난 5~6월 누계 강우량은 2백48mm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백43mm에 비해 1백mm가량 많은 수치다. 하지만 영산강 나주대교 상류의 평균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2.53미터나 떨어졌다.

김창원(59) 영산강뱃길연구소장은 "영산포 주민들은 매년 큰비가 오면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준설을 통해 수위가 떨어지고 저수로 폭이 넓어지면서 물그릇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지 리모델링 농가들 "수해위험 벗어 좋다"

영산강의 제방도 홍수예방에 한몫했다. 대부분 제방 경사면은 기존 1:2~3에서 1:4~5로 바뀌면서 제방폭이 완만하게 넓어지면서 대폭 보강됐다. 둑마루의 폭도 대부분 구간에서 1미터 이상 넓어졌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은 나주시 다시면 염색박물관 인근에는 다시제(1.2킬로미터)와 삼영제(1.57킬로미터) 등 제방이 설치됐다.

지역 농민들도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이다. 나주시 이창동에 사는 김영동(65·농업)씨는 "농경지 리모델링에 참여한 농가가 1백18가구인데 이들 모두가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침수피해는 이젠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로, 땅값도 오르고 수해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통해 영산강은 이전보다 훨씬 홍수에 강해졌다"며 "집중호우 등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올 여름 집중호우를 통해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이동훈 기자

임성훈 나주시장

"수질 4~5급수에서 2급수 이상으로 될 것"

임성훈(52) 나주시장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 단면확장과 준설작업이 이뤄져 현재까지 장맛비로 인한 피해사항은 없다"고 지난 7월 14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전국에 걸쳐 폭우가 쏟아지자 임성훈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단계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주시는 어떤 대비를 했나?
나주에는 영산강살리기 사업구간(1~6공구)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강 인근의 자재와 장비를 이동시키는 등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빗물펌프장 16개소의 가동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영산강 일대의 하천과 배수문, 재해 취약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피해예방을 위한 읍면동 마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영산강살리기가 마무리되면 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하상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홍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퇴적토가 없어져 영산강 수질이 4~5급수에서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보와 수변생태공간 조성으로 관광객과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영산강살리기가 마무리 단계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나?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됩니다. 영산강 본류는 하상정비와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으로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산강 합류부에 있는 지류와 지천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원이 영산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살리기가 끝나면 뱃길복원사업도 진행되나?
상류에는 댐이 있고, 하류에는 둑이 있어 예전의 뱃길을 완전하게 복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나주 구간만이라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포돛배와 더불어 고려시대 선박을 복원한 왕건선을 취항시켜 죽산보에서 승촌보에 이르는 구간을 운항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 상품화 사업' 구상도 밝혔는데?
나주 다시와 반남에는 일본에 영향을 준 고분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영산포에는 영산포등대, 흑주저태랑가옥, 나주금융조합,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근대선창거리 등 근대 포구문화가 보존돼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 나주영상테마파크와 황포돛배, 천연염색상품 등 중국인을 상대로 한 쇼핑관광도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영산포 선창지역을 '식도락거리'로 만들어 홍어, 장어, 곰탕 등의 맛있는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영산강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4년 만의 물폭탄'… 배수 빨라져 침수 줄어

준설효과로 수위 최대 3.5미터 낮아져… 공사현장 일부 피해는 불가피

낙동강 인근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다. 태풍 루사와 매미 때보다 많은 '물폭탄'이었다. 하지만 강수량에 비해 피해는 적었다. 낙동강 준설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배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사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공사가 완료되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40분,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 동촌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부터 내리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다. 그 후에도 낙동강 삼랑진, 구포, 진동 지점 등에 홍수주의보가 연이어 발령됐다. 낙동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의 일이었다. 그만큼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금호강은 4시간 후인 오후 7시40분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배수량이 더 많아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7월 10일 오전 8시에 발령된 진동 지점의 홍수주의보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해제됐다. 구포와 삼랑진 지점의 홍수주의보 역시 모두 해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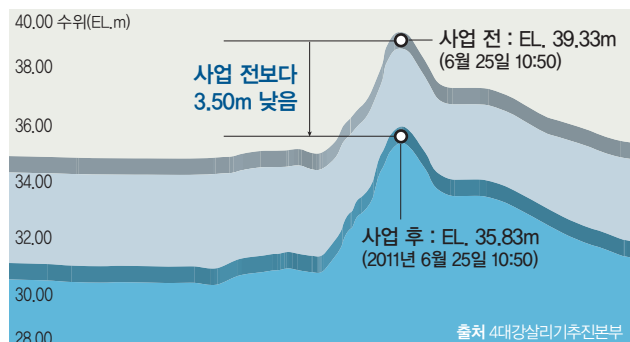
최규현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계장은 "이번 낙동강 지역에 내린 장맛비의 강수량은 2002년과 2003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 때보다 더 많았지만 이렇다 할 홍수 피해는 없었다"며 "준설을 해서 수위가 낮아진 데다 배수도 잘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상습 침수지역도 잠기지 않아 피해 거의 없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수위는 크게 낮아졌다. 과거 동일규모의 강수량과 이번 실제 수위측정값을 비교하면 수위가 최대 3.5미터가량 낮아졌다. 본류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지류에서 본류로 물이 원활하게 흘러 지류의 피해를 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종택 창녕 길곡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후 처음 맞는 올해 장마철에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확실히 준설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사업 전-후 상주 수위 변화 (2011년 6월 홍수)

※ 올해 홍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후 현재(그래프 아래선)'와 '사업 전(그래프 윗선)'을 비교한 것.

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상북도 측 역시 강수량에 비해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한다.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 이번 호우의 강수량이면 상당한 지역이 침수됐을 테지만 준설을 한 후 배수가 잘돼 상습 침수지역인 화원유원지도 잠기지 않는 등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성주와 고령 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돼 농가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도 준설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김종택 창녕 길곡면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낙동강의 수위가 강수량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 정도 강우량이면 남지체육공원이 다 물에 잠겼을 테지만 지금은 낙동강에 가까운 쪽 일부만 물에 잠겼고 대부분은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마음을 졸이고 농사를 망치기도 했는데 낙동강살리기 사업 후 처음 맞는 올해 장마철에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확실히 준설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수량에 비해 적을 뿐이다. 낙동강 본류와 지류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다리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낙동강살리기 공사 현장의 자재와 시설물이 일부 떠내려갔다. 가장 충격적인 사고는 경북 칠곡의 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이었다.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1백년 이상 온갖 풍상을 견디며 버텨온 다리가 무너진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해 다리의 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왜관철교의 붕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설관리공단

남유진 구미시장

"내년부터 단수사태 없이 수돗물 안정적 공급"

지난 7월 9일과 10일 사이에 경북 구미시에는 장대비가 내렸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이 1백70mm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예년의 경우 강우량이 1백50mm 이상이면 낙동강 고수부지는 물론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상이 깊어져 물그릇이 커지면서 더 많은 비에도 수해를 입지 않는 등 구미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수혜를 봤다"고 말했다.

호우 피해는 없지만 남 시장에겐 또 다른 '물 걱정'이 있다. '단수' 사태가 그것이다. 구미시는 올해 2회에 걸쳐 대규모 단수 사고가 벌어졌다. 5월에는 수자원공사의 해평취수장 임시보가 유실되면서 발생했고 6월 말에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물이 끊겼다.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겠습니다.

1차 단수 때는 41만 시민과 2천여 기업체가 불편을 겪었고 2차 때는 2백48개 기업의 4만8천여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사고 후 구미시는 단수 사고와 관련한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위기 대응책을 정비했습니다. 2차 단수 사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수로 조업을 중단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 다시 단수가 발생하면 구미시는 '단수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말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발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는 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11건, 총 4백87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제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구미시는 상수도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확장을 시작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2건의 사업에 1천3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흔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시민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를 흐르는 낙동강은 여름철 홍수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하지만 하천 준설 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비 피해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장기적으로 구미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십니까.

구미시는 1천3백 리에 이르는 낙동강살리기 구간의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가 그 첫번째입니다. 구미보가 완공되면 산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태탐방, 수상보트, 수상스키, 조정경기 등 문화레저 공간도 크게 확충됩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구미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 변형주 기자

이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안보가 침수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6월 말 5호 태풍 '메아리'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함안보 상류 지역에 2백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보 내부에 물이 찼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막이가 무너져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보 옹벽 유실은 공사 미완성 탓

안동보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 안동보 우안 둔치 끝단의 토사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옹벽이 떠내려갔다. 이유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0일 기준수위인 이엘(EL)이 2미터가량 높아지면서 물살이 콘크리트 옹벽 위를 덮치면서 옹벽 뒤로 물길이 생겼다. 그 결과 옹벽 뒤편의 흙과 함께 옹벽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후 일부에선 안동보의 제방이 유실됐다고 설계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실된 것은 제방이 아니라 제방으로부터 70미터 떨어진 옹벽이고 설계부실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홍영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공사1팀장의 설명이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면 강물이 시설물을 넘쳐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석을 쌓아두는 등 응급처치를 한 상태입니다."

칠곡보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제방과 어도가 유실돼 칠곡보 좌안에 건설 중인 통합관리센터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공사 현장의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와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노원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산청 홍보팀장은 "낙동강은 구역이 워낙 넓어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본류의 경우 배수가 빨라져 침수 피해를 줄이는 등 준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수문 개폐를 통해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변형주 기자

김충식 창녕군수

"함안보 침수예방에 도움… 수질도 좋아질 듯"

김충식(61) 창녕군수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는 "올해 장마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었다"며 "여기에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통한 치수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8~9일 호우 경보가 내려 창녕군청 직원들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예년보다 피해가 적었다. 이날 내린 집중호우는 군 평균 3백11mm 이상,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59mm를 기록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낙동강 하류 지역의 피해사항은 어떤가요?

호우 경보가 내렸던 7월 9일(일명 7·9 호우)의 강우량이면 예년에는 남지 체육공원 쪽이 완전히 물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하천 강변의 일부분만이 침수됐습니다. 창녕 길곡면 오호리 신촌마을 배수지의 경우도 큰비가 내리면 배수지 위 도로까지 강물이 범람했지만 올해는 배수지 바닥에만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3년 천문학적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매미'와 비교해 보면 진동수위를 기준으로 약 3미터의 수위저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통한 대대적인 하상 준설공사로 하천의 단면을 확대함으로써 하천 통수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가칭 '함안보' 공정률이 98.2퍼센트로 거의 완성단계인데, 이번 폭우 속에서 '가동보'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요?

보 설치로 인해 하천수위를 상승시켜 폭우 시 주변 부지가 침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하상 준설공사 효과와 함께 수위 조절이 가능한 가동보의 신설로, 이번에 보 주변 부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역 용수공급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 모내기 등을 위한 관개시기에는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다기능보 설치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인구 비율이 높은 창녕군의 농업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위가 높지 않아 확실히 4대강 준설사업의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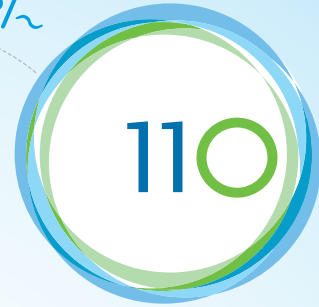
주민 대다수가 분명 과거보다 하천수위가 낮아졌으며, 특히 침수 농경지의 물 빠짐 현상이 준설 이전보다 2~3일 정도 빨라졌다며,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는 물의 범람도 문제지만 유난히 저지대가 많고 강 하류라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2003년 이후 크게 악화됐습니다.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해 정수장을 거친 식수도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천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유량부족과 조류발생입니다. 그러나 올 연말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다기능보 설치가 완료되면 충분한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수질 오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 · 이제남 기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홍보대사 **이 선 영** KBS 아나운서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점프대에서 여름 훈련 중인 스키점프 선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시설 재활용 등을 통해 '경제 올림픽'을 지향한다.

평창을 문화·환경·흑자 올림픽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성공개최 5대 전략' 발표… 제2의 김연아 발굴 노력도

기다림이 길어 기쁨도 컸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5대 전략이 발표됐다.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효율적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환경·경제 올림픽'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전략은 제2의 김연아 발굴을 위한 '드라이브 더 드림 II' 본격 추진도 포함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5대 전략'이 발표됐다.

강원도 평창은 지난 7월 7일 남아공 더반에서 10여 년간의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루고 압도적인 표차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평창은 그간의 유치 과정을 통해 평창의 올림픽 개최가 '아시아 및 전 세계에 동계스포츠를 확산'시키고 올림픽 운동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의 2018 비전을 반영하여 7월 14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한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약속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겨울올림픽을 유치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더반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장에서 유치위원회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IOC와 약속한 대로 대회를 치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IOC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1 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대회 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강원도, 대한체육회 및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을 제정, 빈틈없는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3개월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이는 지난 7월 6일 IOC, 개최 도시, 대한체육회(KOC) 간 체결한 개최도시 계약상의 기한인 '계약 후 5개월 이내'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더불어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 '문화 올림픽'을 위한 문화 관광 콘텐츠 확보

'문화 올림픽 달성'을 목표로 각종 콘텐츠 발굴과 올림픽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박선규 제2차관을 중심으로 부내 체육·문화예술·관광·홍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 및 올림픽과의 연계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해외 거점 지역을 정해 국가별로 한국의 전통 및 현대 예술 등을 망라한 '한국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한다. 특히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평창에서도 올림픽 참가국의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진행해 동계올림픽을 지구촌 축제이자 평창과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3 '환경 올림픽'을 위한 효율적·친환경 인프라 구축

모든 신축 경기장에 대해 LEED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LEED'란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로, 미국 그린빌딩협회(USGBC)가 실시하는 세계 3대 친환경 건물 인증으로 3단계(플래티넘 > 골드 > 실버)로 분류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환경 올림픽' 실현을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제안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대회 준비 과정에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외에도 환경전문가 및 환경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14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4 흑자 대회 달성과 '경제 올림픽' 실현

기존의 대회 개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을 추구하여 예산절감할 계획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동계종목 체험'과 같이 동계스포츠에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전문 관광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다목적홀, 전시장, 시민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경기장을 활용하며, 특히 아이스하키II 경기장은 해체 후 원주로 이전하여 한라 위니아 및 하이원 아이스하키 실업팀의 전용 구장으로 사용한다.

또 효과적인 경기장 사후활용을 통한 경제성 확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경제 올림픽'을 개최해 낼 계획이다.

5 동계스포츠 육성 위한 '드라이브 더 드림 II' 추진

마지막으로, 이번 유치 성공을 계기로 동계스포츠 육성 방안 '드라이브 더 드림 II'도 본격 추진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로잔에서 열린 IOC 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드라이브 더 드림 II'는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천5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의 김연아 발굴을 목표로 ▲멀티트레이닝센터 건립을 통한 상시 훈련환경 구축 ▲훈련의 과학화 지원 ▲글로벌 선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동계스포츠 선진국 스키학교 입학 지원 및 해외 지도자 초청 강습 등을 추진한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임대사

"온 국민의 합작품… 국가도약 계기"

김진선 특임대사는 강원도 지사 시절이던 1999년 이후 12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매달려 왔다. 3수 끝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김 대사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의 노력의 합작품"이라면서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했던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리 기자

지난 7월 14일 서울 역삼동 생태문화세상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김진선 특임대사.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평창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최지 발표 전 입장하던 IOC 위원들이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거나 윙크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포커 페이스를 하고 올라와 단상에 서는 순간, 과거 두 차례 2차 투표에서 간발의 차이로 역전패 당했던 악몽이 떠오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로게 위원장이 '평창'이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떠올라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임대사(전 강원도 지사)는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7월 14일 3번의 도전 끝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낸 김진선 특임대사를 인터뷰했다.

지난 12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놓고 전북 무주와 경합이 붙었을 때와, 2007년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후 3수에 도전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열망하던 도민들도 '평창은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회의(懷疑)하고, 많은 분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벌인다'면서 비판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두 번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들은 90퍼센트 가까운 지지율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높은 지지율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발전에서 뒤처지고 인구도 적다는 데서 온 변방의식, 한계의식을 극복하겠다는 열망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울뚝밸이 있습니다. 달아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달아오르면 쉽게 식지 않는 게 강원도 사람들입니다."

평창은 시설 간 이동거리를 30분 이내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뮌헨이나 안시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때 우리도 남북공동올림픽이나 남북한 분산개최를 고려했습니다. 또 평창과 강릉 이외에 춘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IOC 위원들에게 타

진해 보기도 했습니다. IOC 위원들은 '올림픽은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며, 특정 국가의 이벤트가 아니라 IOC의 이벤트다.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선수 중심, 경기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 시설을 최대한 콤팩트하게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도전 때와 이번 도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 많은 IOC 위원들이 평창이 과거 두 차례나 잘하고서도 떨어졌다는 데 대해 부담감 내지 동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계획서만 가지고 도전한 셈이었지만, 이번에는 경기장과 알펜시아리조트 등 그동안 구축한 시설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IOC도 이런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셋째, 2018년이 나가노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20년이 되는 해여서, 다시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열 때가 됐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욱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백여명이 넘는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는 정부와 체육계, 유치위원회가 전에 없이 힘을 모아 강력하게 지원해 준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애썼는지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더반에서 IOC 위원 몇 명 만나고,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년 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도와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해당국 정상에게 평창 유치 지원을 부탁하고, IOC 위원과의 만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IOC 위원을 서너 번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한 번 만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남아공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을 어떠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아공에서만 5박6일을 머물렀습니다. 이는 우리 외교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1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고 끼니도 걸러가면서 30여명의 IOC 위원을 개별면담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땠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잘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밖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애쓴 분들을 꼽는다면?

"이건희 IOC 위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조양호 유치위원장, 문대성 IOC 선수위원 등도 애를 많이 쓰셨고, 각 경기단체 관계자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국제체육계 인사들을 움직이기 위해 모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분들과 강원도민 등 국민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일궈낸 전 국민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AFP연합

지난 7월7일 평창의 2018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김진선 특임대사는 오랜 꿈을 이룬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했던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국가브랜드파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입니까?

"지난 12년 동안 올림픽 유치를 위해 뛰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그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는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G

글·배진영 기자

조석준 기상청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단 구성

"2018년 겨울 평창은 춥고 눈 많이 쌓인다"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지난 7월 7일 자정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된 직후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단'을 꾸렸다. 기상지원단에는 기상청 차장을 필두로 사실상 모든 부서가 총동원됐다. 기상청 측은 "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통해 참가선수와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동계올림픽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성 기자

조석준 기상청장이 지난 7월 12일 자신의 아이패드를 사용해 기상정보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초대형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기상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은 경기에서 기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기상올림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산악에서 벌어지는 겨울스포츠는 기상조건에 따라 경기력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기상청이 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기상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조석준(57) 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국가정책이 향후 여러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며 "기상청도 국가적 행사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준 청장은 지난 7월 7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다음날 기상지원단을 꾸렸다. 조하만 차장을 기획단장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과장급 기획단과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관급 추진반으로 지원단을 편성했다. 관측정책과, 기상자원과, 예보기술팀, 정보통신기술과, 응용기상연구과, 국제협력과, 강원청 예보과 등 기상청 내 모든 부서가 총동원됐다.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기상지원

기상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때도 특별기상지원을 실시했다. 오는 8월 27일 개막되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기상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펼칠 기상지원 역시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상지원단은 ▲고밀도 첨단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올림픽 개최 주요지점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정밀 기상예측기술 개발 ▲차세대 통신망을 이용한 경기장별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 ▲선수단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기상정보서비스 개발 등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기상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장과 연습장 주위에는 미래사물통신네트워크(IP-

USN) 기술을 이용한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후 사물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자료수집으로 실시간 맞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8천3백여명이 입주할 선수촌과 10만72실의 숙박용 객실에 맞춤형 기상정보 및 건강, 환경정보 등의 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여기 아이패드를 보십시오. 아이패드를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리에 붙이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웨비게이션(웨더+내비게이션)'이 되는 셈이죠. 지금도 사용되는 기술인데 2018년에는 더 진화할 겁니다. 동계올림픽을 찾는 관광객은 자신이 찾아가려는 경기장과 관광지의 날씨를 미리 체크해서 일정을 짤 수도 있습니다."

"밴쿠버보다 더욱 상세한 정보 제공"

기상청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각 경기장별로 기상예보관도 둘 계획이다. 기상청은 개최지 선정 직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도 IPTV를 활용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했다. 또 정선 중봉에 자동기상관측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1년간의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는 등 유치활동을 물밑 지원한 바 있다.

조석준 청장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향후 2시간에 대해 15분 간격으로 1킬로미터 해상도의 기상정보를 지원했다"며 "우리는 이보다 더욱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상청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식 조직편제 안에 들어가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리의 기상예보 시스템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듭니다. 충북 오창에 있는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수치예보를 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예보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 한 곳입니다. 또 20년이나 되는 수치예보의 역사도 있고, 기상위성을 세계에서 7번째로 쏘아올린 나라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예보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기류변화가 심하지만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조밀한 관측망을 갖고 있다"며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형특성에 맞춰 지난 5월 기상관측선을 띄웠고, 외국의 수치모델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한국형 독자 수치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상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강화하는 것에도 주력할 방침"이라며 "동계올림픽 예보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기상서비스 비전의 바람직한 모델을 구현할 것"이란 각오도 다졌다.

연합
국내 첫 기상관측선인 기상청 소속 '기상1호'가 지난 5월 30일 취항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예보 정확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준 청장은 일부 해외 언론과 네티즌들이 "2018년 평창에 눈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딴지'를 거는 데도 한마디 했다. 그는 "가뭄과 홍수 같은 큰 변화도 한두 달 정도를 내다볼 뿐"이라며 "2018년 날씨는 과거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예측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평창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겨울에도 추운 날씨에 눈이 많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30년간 평창의 2월 평균기온은 영하 5.5도

실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평창의 기상조건은 겨울철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최적이라는 평가다.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는 기온과 풍속 등이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키를 타는 데 가장 최적의 기온은 영하 10~영하 5도다. 이 온도 사이에서의 설질(雪質)이 스키를 타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평창의 과거 30년간 2월 평균기온은 영하 5.5도였다. 스키를 즐기기 가장 좋은 기온에 해당하는 셈이다. 평창은 과거 30년간 2월 한달간 평균 25일간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또 평창 지역에 쌓여 있는 눈의 평균 깊이는 40.7센티미터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는 그가 2018년 평창의 겨울날씨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근거다.

인터뷰를 마치며 조석준 청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7년여 앞두고 겨울스포츠를 배울 생각도 드러냈다. 조석준 청장은 "스케이트는 대학시절부터 즐기는 겨울스포츠"라면서 "스키는 타 본 적이 없어 스키장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에서도 구경만 하는 정도지만 조만간 스키나 스키보드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석준 청장은 서울대 대기학과를 나와 공군기상장교로 복무한 국내 1호 기상전문기자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G 글·이동훈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정치적 논란 유감… 혼과 열을 쏟아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현실이 됐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다. 세계 4대 스포츠 빅 이벤트, '스포츠 그랜드슬램' 달성을 보게 되다니.

무엇보다 신나는 일은 독일, 프랑스 등 알프스 부국(富國)들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대열에 뛰어오른 사실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야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통설을 뒤엎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한국의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의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알프스나 로키 같은 큰 산은 없으나 더 높고 강한 의지가 있는 나라'라는 어떤 광고카피가 눈길을 끈다. 세계 언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산이라도 옮겨 놓는다. 한국인과는 경쟁할 생각을 버려라." 그렇다. 폐허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우리. 반세기 전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평창의 성공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승리에서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상승세를 탄 대한민국의 '팀 파워'다. 그러나 이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하나 된 희망과 저력을 만들려 한다면 여기에 혼(魂)과 열(熱)을 쏟아 부어야 한다.

자연파괴 최소화·수익 극대화에 지혜를

그런데 '더반 승리' 이후 국민적 열기가 폭발한 이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와 단일팀 구성'이라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접어두고라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땀 흘려 이루어 놓은 일을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민 합의와 국제 약속에 의해 결정된 일이다. 올림픽은 한 국가, 한 도시에 국한하여 열리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동계올림픽은 시설 간의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못 박아 놓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이 있다 해도 우리 선수들의 출전보장이란 측면에서 대한체육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기장 건설에 의한 환경파괴 우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DB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경기가 열리게 될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평창 동계올림픽은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여는 올림픽으로 치러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날 평창동계아시안게임 때의 발왕산,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때의 덕유산 개발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선 가리왕산의 활강경기장 건설만 해도 하이원 리조트의 성공전략처럼 동북아 관광허브를 만든다는 기대감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 메달' 영역인 설상(雪上) 종목에서 우리의 메달리스트가 나오기를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보다 올림픽정신을 살린 국민 합의와 사회 통합이 '평창신화'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빌고 싶다.

1960년 미국 스쿼밸리동계올림픽 기록영화는 한국 스키선수로 처음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임경순 선수가 무시무시한 슬로프에서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비춰 주면서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다"고 코멘트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성공을 거두면 세계는 평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올림픽정신의 승리자"라고. 그러나 흥분하고 즐기기 전에 힘을 모아 빈틈 없는 준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G

글·이태영 (대한언론인회 부회장·KOC 국제위원)

기 획 특 집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공정 DNA가 진화한다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이라도 공기업은 공익을 우선 추구한다. 이익은 그 다음의 일이다.
최근엔 공공기관의 '공정 DNA'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정사회 구현의 들머리에 선 것이다.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기업시민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완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채용을 늘리며 사회공헌활동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일러스트 · 유현호

투명경영은 기본…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

하도급 관행 수술 · 협력사와 공동수출상담 등 동반성장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본연의 '업무'만 달성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업무는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라는 목소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미 첫발을 떼었다. 각 기관의 사정에 어울리는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도 구성해 전체적인 체계성과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대구시에 소재한 '동구행복네트워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대구율하지구 국민임대단지를 거점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한 데다 저렴해서 인기가 높다.

지난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기반이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로부터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지역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LH공사의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대주택단지에 사회적 일자리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3개 기업에 5억원을 지원했고 향후 5년간 총 30곳에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LH공사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모두 30가지의 동반성

조선DB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는 'LH 마을형 사회적기업'인 동구행복네트워크.

장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LH공사의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동반성장 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신설했다.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다. 실천방법은 다양하다. LH공사처럼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지난 4월 개최된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5백79개의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1백22개 기관이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굴한 과제들이다.

제품 구매의무화 등 중소기업 지원 추가 확대

지난 2월 17일 범정부적 차원의 '공정한 사회 추진방안'이 발표된 후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월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이 정해졌고 이 방안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담당 국장과 공공기관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협의회'가 구성됐다.

실천과제는 5가지다. ▲공정한 보상 ▲건전한 노사관계 ▲불공정거래 개선 ▲균등한 기회 ▲나눔의 문화 확산이 그것이다. 공정한 보상과 건전한 노사관계는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이기도 하다.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성과 내부 시스템을 한층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불공정거래 개선과 균등한 기회, 나눔의 문화 확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위한 활동이다. 민간업계에서 시작된 CSR은 이미 일반화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객은 물론 투자자들도 CSR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CSR에 대한 글로벌스탠더드인 'ISO 26000'이 발효돼 공공기관의 CSR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중소기업·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등으로 민간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 수준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먼저 중소·협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자금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교육을 확대한다. 수출지원도 강화하고 대기업이 주도해 높아진 업종의 경우 진입장벽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기관마다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전략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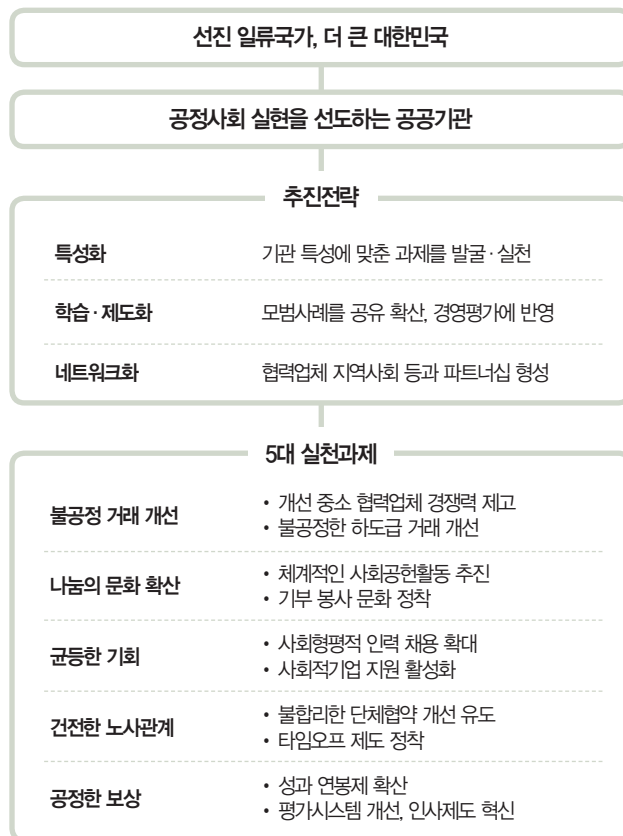
선진 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

공정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추진전략

특성화	기관 특성에 맞춘 과제를 발굴·실천
학습·제도화	모범사례를 공유 확산, 경영평가에 반영
네트워크화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파트너십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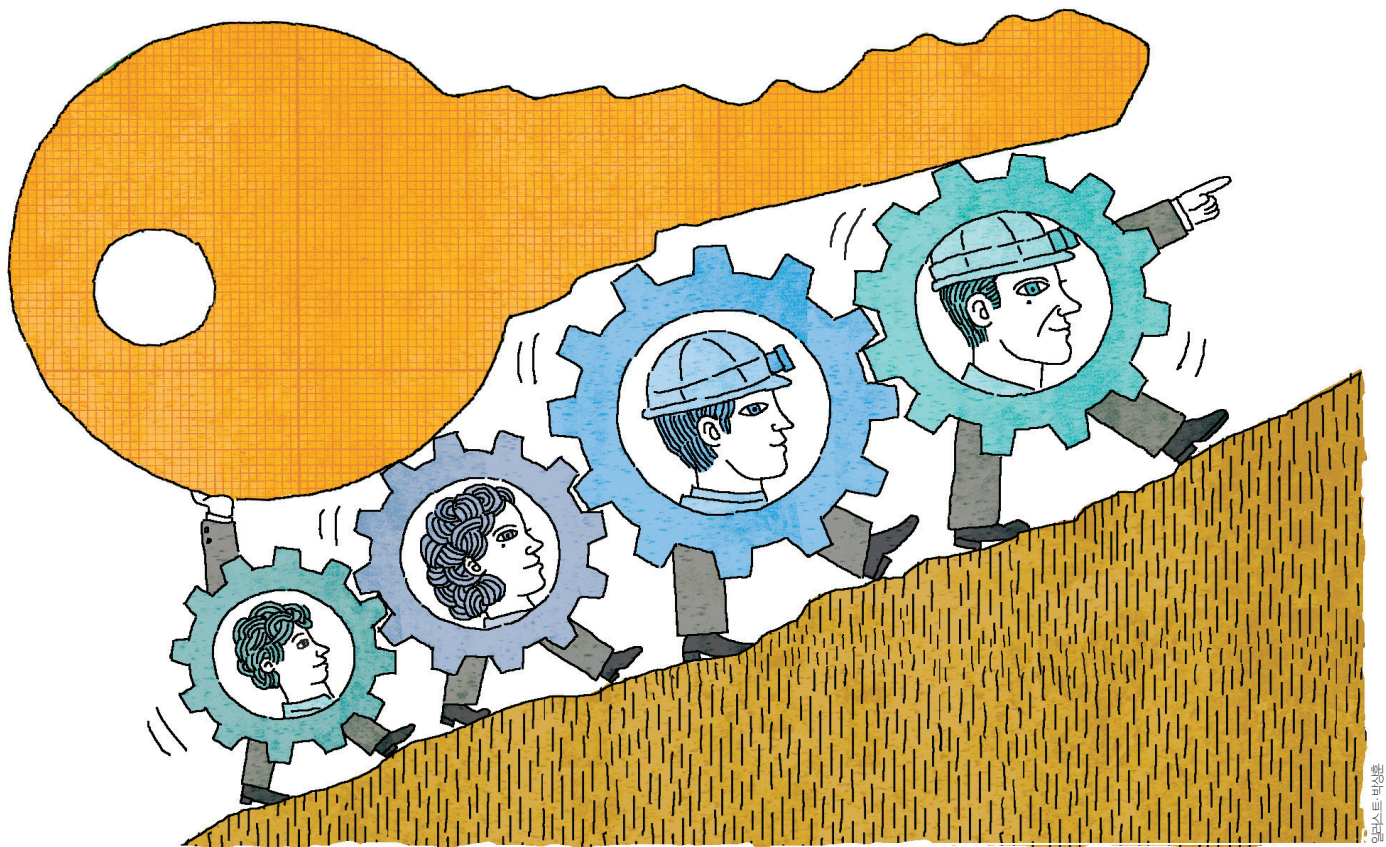
5대 실천과제

불공정 거래 개선	• 개선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개선
나눔의 문화 확산	•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 • 기부 봉사 문화 정착
균등한 기회	•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확대 •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건전한 노사관계	•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유도 • 타임오프 제도 정착
공정한 보상	• 성과 연봉제 확산 • 평가시스템 개선, 인사제도 혁신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채용문 넓혀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문도 넓힌다. '균등한 기회'의 확대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사회적 약자 채용은 정체돼 있다. 청년실업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들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의 외주업체 선정 시에 장애인 고용을 입찰조건에 반영해 장애인 취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단발적으로 진행되던 사회공헌활동은 체계화한다. 기관 안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해 조직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매칭그랜트 등을 활용해 사회공헌기금도 조성한다. 외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사회복지재단 등과 공동으로 특색 있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일러스트·박상훈

“하청 설움 싹 씻었어요”

분리발주로 중소기업에게 단독입찰 기회 늘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철저한 ‘을’이다. 단독으로 공사에 입찰하기도 어렵고 대기업이 진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경우엔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난방공사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의 경우 거래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 정호이엔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고양 축열조(온수저장시설) 제작 설치공사에 입찰해 낙찰을 받은 것이다.

공사 규모는 1백4억원이었다. 정호이엔씨에는 큰 공사다. 게다가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할 때보다 수익성도 10퍼센트 이상 높아 실적 개선에 적잖은 보탬이 된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난방공사와 직접 계약했다는 점이었다. 무엇보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으면 공사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번 계약은 난방공사와 직접 계약해 다른 공사에 입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난방공사와 공동 작업을 하면서 기술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수익 향상은 물론 기술력·경험도 쌓아

정호이엔씨가 고양 축열조 공사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은 난방공사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발주는 말 그대로 하나의 큰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수도 있고, 시공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분리발주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거래 형태다. 일괄발주의 경우 중

조선DB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공사를 비롯해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해 공사와 중소기업 모두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동반성장효과'를 얻고 있다.

소기업은 대개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

단가인하와 구두발주, 비용전가,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가 적잖다. 이에 비해 분리발주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므로 수익성도 높이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다. 윤지현 난방공사 동반성장팀 차장의 설명이다.

"일괄발주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공사를 쪼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죠. 축열조의 경우 지금까지도 중소기업이 하던 일입니다. 난방공사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중소기업과 직접 계약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는 1995년부터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를 하기 시작했다. 열배관공사가 주요대상이었다. 난방공사는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 기존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한정됐던 것을 2010년엔 3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대형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09년 전체 7백57억원 규모인 열배관공사에서 3백억원이 중소기업에 돌아갔고 지난해에는 3백30억원 가운데 2백40억원이 중소기업의 몫이 됐다. 올해는 약 3백억원 규모의 열배관공사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주금액은 1백60억원 수준이다.

분리발주가 중소기업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난방공사에도 도움이 된다. 간접비 부담이 줄어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일괄발주의 경우 통상 직접재료비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간접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배관공사의 경우 난방공사는 지금까지 약 13퍼센트의 원가를 절감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을 이룬 셈이다.

윤 차장은 "계약업체가 늘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 등 관리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난방공사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난방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가 해마다 다르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도 제한돼 있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난방공사의 사례가 또 다른 공공기관에 도입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난방공사의 동반성장 드라이브는 분리발주에서 멈추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지원하고 보증도 제공한다.

하도급의 경우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의 경우 원청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뤄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대금을 빨리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난방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3백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4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기업이 대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불공정한 거래의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공정사회 달성을 위한 사내문화 정착에도 적극적이다. 올 초에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클린 KDHC(난방공사의 영문 약자)'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사적인 반부패·청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고 경영진에서부터 임직원, 관계사와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고객 등 전 가치사슬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부패발생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등 내부공익신고제도를 강화하고 부패영향평가도 확대 재편하는 등 내부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홍보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협력업체와 '청렴 협약식'을 맺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대·중소기업 '표준프레임워크' 공동개발 유도

기술로 맺은 상생…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표준프레임워크센터는 전자정부 입찰에 있어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곳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공동의 틀을 만들고 이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 상생사회를 만들고 있다.

한준호 기자

대기업사원, 중소기업사원 따로 없이 표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센터 직원들.

모처럼 비가 그쳐 화창한 지난 7월 6일 서울 청계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3층의 '표준프레임워크센터'. 사무용 책상을 팀별로 나누고 있는 칸막이 위쪽에 붙은 직원들 이름표가 이채로왔다.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인 LG CNS, SK CNC, 삼성SDS 등 대기업 명칭과 나란히 중견기업 '현대정보기술', 중소기업인 '유테커스', '오픈잇', 'K4M', '씨엔아이에스' 등 소속 회사명을 밝힌 이름표가 혼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중소기업 직원들이 몇 년째 어울려 공동 작업을 해내는 곳이 또 있을까.

"이곳은 전자정부 입찰에 있어 공정경쟁의 기반이 되는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대·중소기업에서 파견된 직원 30여명이 3개 팀으로 나눠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표준프레임워크센터 김은주 팀장이 이렇게 '표준프레임워크'란 이상을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표준프레임워크'란 마치 건설·건축 분야에서 핵심 자재를 모듈화(기능별로 쪼개기)하여 공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기법과 유사하게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기업서 파견된 직원들 수년째 함께 작업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개설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해 최근 정부가 구축해 온 전자정부 사업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막혀 왔기 때문

이다. 국내 SI 3사의 평균 구축비가 1백80억원, 유지비가 연간 40억원에 이르는 상황. 중소기업으로선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어서 전자정부 사업의 85퍼센트를 이들 3개사가 점유하고 있었다.

전자정부 시장은 연간 6조원 규모로, 공개된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5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IT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입 장벽 철폐가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2007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출범했다.

지난 2009년 11월 1단계 구축, 지난해 10월 2단계 구축을 거쳐 표준프레임워크의 실행·개발·관리·운영 등 환경이 만들어졌다. 올 7월 초까지 표준프레임워크센터 포털사이트에 공개되는 공통 컴포넌트가 2백19종에 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프레임워크는 올 4월 현재 총 1백13개 전자정부 사업에 적용됐다. 올 상반기에 적용된 사업비 규모는 3천억원대. 중소기업 수주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4퍼센트,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증가했다.

김 팀장은 "중소기업 수주율이 급증한 것은 프레임워크 관련비용이 절감된 데다 기타 부분의 개발비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부 사업 이어 금융·유통도 적용 확산

국내외 상도 휩쓸었다. 표준프레임워크는 2009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10년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상' 대상을 수상해 기술력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또 싱가포르가 주관하는 '2010년 미래정부시상식'에서도 16개국 8백69개 공공프로젝트와 경쟁, '올해의 정부상' 대상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다. 민간수요도 늘어 지난 2009년 11월의 1단계 구축 이후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사상 최단기간 다운로드 10만건을 기록했다. 이날 현재 11만 건을 넘었다. 4백99개 중소기업의 개발자 1천7백70명을 대상으로 개발 관련 무상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개설된 '표준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는 다양한 대·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술공유를 추진하는 '개방형 생태계'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사실 전자정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대기업과 '절대약자'인 중소기업을 함께 끌어들여 표준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김 팀장은 "대·중소 IT기업 모두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자란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웠다. 대기업은 선정시장의 붕괴를,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사업추진을 걱정했으며 정부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령, 소득, 직업,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열린 '2011어르신정보화제전'.

걱정했다"면서 "그렇지만 결국 동반성장 기반구축이란 대의에 합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이곳에서 표준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해 온 LG CNS 프레임워크그룹의 민병석 부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4종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지난 4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IT 산업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고, 우리 회사 독자적으로 하던 것과는 다른 기술 축적의 결실도 있다"고 말했다.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 '오픈잇' 솔루션 개발팀의 윤병욱 과장은 "우리 회사는 SK CNC의 파트너로서 동참했다"며 "다른 업체의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기술개발을 한다는 점에서도 인적·기술적 메리트가 있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개방형 생태계' 보금자리로

지금까지의 표준프레임워크 작업으로 이들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IT업계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프레임워크센터에서는 올 11월 완성을 목표로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이 될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개발이 한창이다. LG CNS는 실행 환경을, SKC NC는 개발환경을, 삼성SDS는 공통 컴포넌트 분야 개발을 맡고 있다.

센터 근무자들은 소속 회사 구분 없이 팀을 나누고 자리 배치를 하다 보니 얼핏 보아 '연합군'이 아니라 같은 회사 직원들로 보일 만큼 화기애애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함께 어울려 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은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경쟁회사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한 동료이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들이었다. G 글·박경아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센터 ☎02-2131-0555
표준프레임워크센터 포털사이트 www.egovframe.go.kr

에너지 빈곤층 가정에 '또다른 햇빛'

전공살린 봉사… '태양광 발전' 무상 설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올해부터 에너지 R&D 기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가정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햇빛나눔'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사가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출범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09년 9월 중증장애인재활센터인 '요셉의 집'과 '요한의 집'에 LCD TV 등을 기증했으며 2010년에도 상주보육원, 수서임대아파트 주민(10가구), 천안함 희생자 유족, 그리고 강남구 거주 기초수급자·소년소녀 가장·다문화 가정·독거노인 등에게 장판·쌀·라면·내복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2천4백12만원. 요즘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그리 크지 않은 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이 80명 남짓한 것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봉사기금은 직원 · 회사 '매칭 그랜트'로 조성

특히 이 돈은 노사 모두의 노력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전 직원이 매월 기본급의 0.2퍼센트를 공제해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조성하고 사측에서 거기에 상응해 일정액수를 내놓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

조선DB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 40여명은 지난 7월13일 경기도 광주의 한사랑마을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

이 1천5백51만원을 조성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8백만원을 내놓았다. 여기에 법인카드 포인트를 전환한 61만원을 보탰다.

올해 들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제까지의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나눔'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다.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는 광열비가 가구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 빈곤층 가구에 녹색에너지를 제공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6월 15일 '에너지 나눔과 평화'(이사장 김정욱)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햇빛나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그 밖에도 환경보호활동을 펼치는 환경녹색나눔, 직원들이 1년에 두 번씩 헌혈에 참여하는 생명녹색나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하고 후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매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을 하고 시설지원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부금 전달, 어린이들의 교육지원, 문화현장체험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프라 개선 지원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에는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 40여명은 지난 7월 4일 경기도 광주 한사랑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햇빛나눔 협약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고유의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이다. 노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조성한 것도 그 일환이다.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매칭 그랜트 참여는 0.2점,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녹색사랑나눔프로젝트 참여는 0.3점, 헌혈은 0.2점, '사랑의 울타리' 참여는 0.4점, 자율봉사활동은 0.2점이다(1회 기준).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된다. 연간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평가해 '녹색나눔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있다.

노사 간 대화 창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사회공헌활동추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사회공헌활동추진단장도 원장과 노조대표가 함께 맡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관련 실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지난 6월 17일 사회공헌단 발족식에서 이준현 원장은 "공정 사회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매진하겠다"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역량에 맞는 특성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이준현 원장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회공헌 집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작은 조직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철학은.

"사회취약계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다. 공공기관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은.

"에너지 R&D 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녹색나눔', 즉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자 한다."

'녹색나눔'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특화시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해온 단순기부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업무 특성이나 역량과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다. 80명 남짓한 인원으로 연간 조성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은 2천만원 정도로 한계가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NGO와 연계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양성, 청소년 어린이 대상 에너지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생각이다."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함께 추진하는 '햇빛나눔' 사업이란 무엇인가?

"에너지 빈곤가정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불 꺼진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켜지길 기대한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재단과의 자매결연 등 어린이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그들이 외부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다 나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취약계층에 균등한 교육·취업 기회 제공

장애인 인턴·정규사원 뽑아 '희망 키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공정사회 모습 중 하나다. 이를 몸소 실천해 온 공공기관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창립 초부터 장애인·취약계층·농어촌·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인턴사원을 대거 채용해 취업 소외계층의 고용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지난 6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장애인 대상 80명 인터사원 모집'이라는 파격적인 공고를 냈다. 선발된 인턴은 7월부터 6개월간 본사 및 사업소에 배치돼 업무지원과 홍보 및 자료관리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인턴 근무 중에는 어학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인턴을 수료하면 향후 한수원 입사시험 시 5퍼센트 가점을 부여받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채용공고는 일회성이 아니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장애인 29명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했다. 하반기에는 50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2001년 4월 창립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사랑 받는 한수원'을 모토로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해 왔다. 2004년 17개 봉사대 1백50개 팀으로 이루어진 '한수원 사회봉사단'을 창단한 후 전 직원이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재능 기부 등 미래 인재육성 봉사에 역점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미술 등을 가르치는 재능기부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동목욕 봉사, 사랑의 집수리,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꾸준한 나눔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나눔봉사는 미래 인재육성이다. 심재훈 대외협력팀장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

조선DB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발전소 주변 32개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을 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한수원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문화여행'의 일환으로 서울 천호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샤갈전〉을 관람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을 것"이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한다. 전국의 발전소 주변 32개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을 하고 학습지원, 간식제공, 아동센터 시설개선, 발전소 견학 및 문화체험 등 지역아동센터가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대학생 지식나눔 봉사대'도 발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년 국내 우수대학 재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생 지식나눔 봉사대원 40여 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봉사대는 방학 기간 원전 주변 지역 초·중·고등학생 8백여 명에게 진로 상담과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장학금 지급을 통해 이 같은 대학생 봉사를 장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교육 기자재 보급 및 시설 개선은 물론,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장학금 지원 참여가 활발하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민들레 홀씨기금'을 운용 중인데, 매년 17억~19억원이 장학금으로 모인다.

이 기금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장애우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1백 가구에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임직원들이 자진 반납한 임금 5억2천만원을 저소득가정 3백25가구에 지원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지역 봉사에도 열심이다. 경주 세심마을, 산에들레마을 등 원전 등 각 발전소가 위치한 주변 농어촌 2백87곳과 자매결연을 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농촌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소외된 농어촌을 지원한다. 명절에는 자매마을에서 생산한 쌀과 굴비, 미역, 다시마 등 지역특산물 구매운동도 벌이고 있다.

'민들레 홀씨기금' 만들어 소년·소녀 가장 등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의 나눔은 중소기업으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당한 횡포가 자주 문제시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상생경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는 다양한 협력사와 일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공동 R&D 추진,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 등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남석 중소기업지원팀장은 "협력사는 우리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며 "중소기업의 취약한 인력 지원을 위해 테크노 닥터제, 전담 멘토제 등 다양한 맞춤형 인력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위한 '동반성장대출제'도 신설했다. '동반성장대출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1백25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1.4퍼센트포인트 저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 및 자금지원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남석 중소기업지원팀장은 "최근에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여성기업 제품·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했다"며 "이번에 용역계약 적격심사 기준에 가점을 신설해 앞으로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G

글·이제남 기자

심재훈 한국수력원자력 대외협력팀장

"일자리 제공 통한 자립형 사회공헌 주력"

조선DB

"자선형, 단순기부형의 사회공헌 활동은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재훈 한국수력원자력 대외협력팀장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첫손에 꼽았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경주시, 경상북도와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회적기업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단(Global Nuclear Training Center)'을 설립 중이다.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경주시 양북초등학교를 임차해 교육시설로 리모델링 중이며 이르면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재훈 팀장은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단 설립으로, 원전 주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우수한 전문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공동작업장,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원전 주변 지역에 1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추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도 공기업을 대표해 공정사회 구현에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 확대,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중소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리,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국민의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장박스 제조 사회적기업 '메자닌아이팩' 지원

새터민의 평생직장… "일한 만큼 보상받아"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년간 모두 2천만원을 사회적기업 '메자닌아이팩'에 지원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장박스 제조업체 '메자닌아이팩'은 새터민(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기업이다. 지원금은 박스 생산 설비에 쓰였다. 메자닌아이팩 직원들도 "자신들이 버는 돈이 이북사람 수백명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경호 기자

지난 7월 4일 경기도 파주의 사회적기업 '메자닌아이팩'에서 새터민이 주축이 된 근로자들이 골판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고저, 사진은 찍지 마시라요."

새터민(탈북자) 김씨(46)는 지게차를 능숙하게 몰며 사진 찍히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함경북도 온성 출신인 김씨는 2007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왔다. 김씨는 2008년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포장박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메자닌아이팩'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씨는 아침 5시에 일어나 파주로 출근한다. 출근시간만 2시간20분이 소요된다.

지난해 김씨는 북에 있던 아내와 아들, 딸까지 모두 남으로 데려왔다. 크고 작은 브로커만 10명을 거쳤다. 그래도 땀흘려 일해 차곡차곡 모은 돈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빼내오는 밑천이 됐다.

새터민 등 취약계층 생활향상이 기업목표

지난해 한국으로 넘어온 아내도 악착같이 노력한 덕에 각종 자격증만 6개를 따냈다. 김씨는 "요즘 약국에서 사무를 보는 아내의 월

급이 나보다 더 많다"고 웃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식들의 학비 대기는 조금 벅차지만 가족들과 오순도순 지낸다. 최근 영구임대아파트도 전세로 돌렸다. 그래도 김씨는 "동생과 누님이 아직 북에 남아 있어 걱정이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고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고저, 노력의 열매가 대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남한)가 좋다"며 땀을 닦고 다시 지게차 핸들을 잡았다.

김씨가 근무하는 메자닌아이팩은 새터민 고용비율이 50퍼센트에 달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메자닌아이팩은 전체 직원 33명 중 16명가량이 새터민이다. 또 8명은 고령근로자와 장애우들로 구성돼 있다.

메자닌아이팩은 지난 2008년 5월 열매나눔재단 김동호 목사의 제안으로 창업했다.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 2층을 이어 주는 공간을 일컫는다. 취약계층을 이어 준다는 뜻이다. 포장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상덕 사장이 김동호 목사의 요청으로 회사를 맡아 운영 중이다. 박 사장은 "새터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평생직장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경기도의 인건비 등 지원도 큰 힘

상품 포장에 쓰이는 골판박스와 컬러박스를 생산해 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이 회사의 주 업무다. 작업장에 들어가자 대형기계가 쉴 새 없이 누런 골판박스를 뽑아냈다. 북한 말씨를 쓰는 40대 여성들은 능숙한 솜씨로 박스에 접착제를 붙였다. 이들 역시 카메라에 경계감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였다.

현재 메자닌아이팩은 한국도자기, 녹십자, 신한다이아몬드, 비상출판 등 1백여 곳에 박스를 납품하고 있다. 청와대에 설과 추석 명절 때 각계 인사에게 나눠 주는 명절선물용 박스를 납품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2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29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상덕 대표는 "올해는 매출 40억원 이상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는 각계의 지원과 관심이 많은 도움이 됐다. 지난 5월 26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천만원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도 이 회사에 1천만원을 보탰다.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도 인건비 조로 약 7천만원을 지원했다.

물론 창업 초기 새터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박 사장은 "사회주의식 사고와 생활태도가 몸에 배어 작업 중 잡담과 근무태만이나, 동료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식 경제관념을 새터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래도 박상덕 사장 이하 메자닌아이팩 직원들은 "수백명의 북한동포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번 돈을 다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 이북에 있는 일가친척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 박상덕 사장은 "새터민과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업종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 사회공헌팀장

"새터민도 다문화가정… 사회적 자산 되게 도와요"

이정민 기자

"새터민(탈북자)도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정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와 살아온 환경이 사실상 다르기 때문이죠. 수출입은행이 새터민 돕기에 나서는 것은 신(新)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회적 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다문화가정 출신 아닙니까."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한 한국수출입은행 안종혁 사회공헌팀장은 지난 5월 26일 노성관 부행장과 함께 경기도 파주의 '메자닌아이팩'을 찾아 1천만원을 전달했다. 메자닌아이팩에 전달된 1천만원의 후원금은 '인쇄지부착 기계(일명 싸바리 기계)'를 사는 데 쓰여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도 메자닌아이팩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이 새터민 돕기에 적극 나서는 까닭은 남북협력기금을 수탁하는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안종혁 팀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도 새터민 돕기에 나서는 식으로 국책은행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29명을 선발해 2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또 서울 중구 남산동에 있는 통일부 산하 특수학교인 여명학교에 지난 2006년부터 모두 6천1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안종혁 팀장은 "올해도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사업과 여명학교에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씩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활동은 수출입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는 '글로벌 한가족' 운동의 하나다. 수출입은행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서 시집오는 결혼이주여성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PC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국내정착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 1세대 초청행사도 했는데 호평을 받았다.

특권 버리고 고통 나눠야 '공공의 친구'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속적인 성과 나타나야 국민의 신뢰 확보

공정사회 구현은 공공기관의 태생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동참 역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이 좀더 과감하게 '구태'를 버리고 사회적 책임에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국정운영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목적의 공공성,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성, 규제의 공공성에 기초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제도이다. 특히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적절한 조건(요금 등)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를 위해 설립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건 중의 하나인 공공성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구성 주체 중 하나인 공기업은 정부가 공적 소유권을 통해 주주에게 국한된 협의의 이익을 국가에 체화된 광의의 이익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다.

공정사회 기여가 새로운 평가 잣대로

이처럼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특권의 타파, 사회적 신뢰, 사회적 유대와 상생 등의 원리가 사회 각 부문과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부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 및 교환 과정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해 환류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중 하나인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에는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또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계량지표를 통해서는 청년미취업자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 올해 '사회공헌' 비계량지표 신설

특히 2011년에는 '사회공헌' 비계량지표를 신설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의식, 관행, 제도 등의 불공정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중소협력기업, 업무유관단체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 봉사활동 수행 및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신뢰 제고와 사회적 유대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협의회'를 발족해 6개 항목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불공정하도급 개선 등 공정·투명계약, 사회적 기업 설립,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가시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내적으로는 채용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대국민 및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정·투명계약 등 공정한 거래활동, 동반성장 지원,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활동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신뢰와 유대, 상생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의 농촌 일손 돕기 장면.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불신과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무사안일, 철밥통, 높은 인건비와 과도한 복지혜택 제공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끊임없이 국민의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기관 본위의 사업다각화와 조직 및 인력의 방만성,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의 취약 등으로 인한 설립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문제도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인 공공성 확보를 잠식하고 있다.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 체계적 전개를

아울러 민간부문과의 납품 및 조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비리 문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및 윤리성 확보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고질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빈약한 성과'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기관은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친구'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 요소를 스스로 타파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동반성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자발적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ISO 26000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인권 신장, 노동관행 개선, 환경보호,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7가지 요소를 사회적 책임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엮어서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 사회책임은 국민에 대한 의무

공공기관은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소재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긍정적 보도보다는 부정적 보도가 많다. 해외 원전수주나 광물자원 개발과 같은 긍정적 사례도 소개되지만, 방만경영이나 철밥통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소개되는 일이 잦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을 소비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약 24만명으로 삼성전자 등 5대 기업 고용인원보다 많으며, 공공기관 전체 예산도 정부예산의 2배가 훨씬 넘는 4백60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이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비판을 한다.

공공기관에게는 애초부터 높은 사회적 책임성이 부과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기대의 충족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반영하듯 공공기관에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혹은 사회책임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 경제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부터 사회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 시작

이를 상징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된 ISO 26000이다. ISO 26000은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완성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지만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정부로부터 주어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 환경, 노동관행,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 정부정책의 충실한 집행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사회적 책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ISO 26000의 요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적 책임을 자선적 사회공헌 활동 정도로 혹은 봉사활동의 일부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성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숙고와 더불어,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

글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조선DB

공공기관의 역할이 정부정책의 집행에서 ISO 26000이 요구하는 사회적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넓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공공기관 동반성장협의회 창립 총회.

여름철 뜨거운 폭염,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날! 주의하세요!

갑작스런 더위

높은 기온

약한 바람

높은 습도

폭염예방 9대 건강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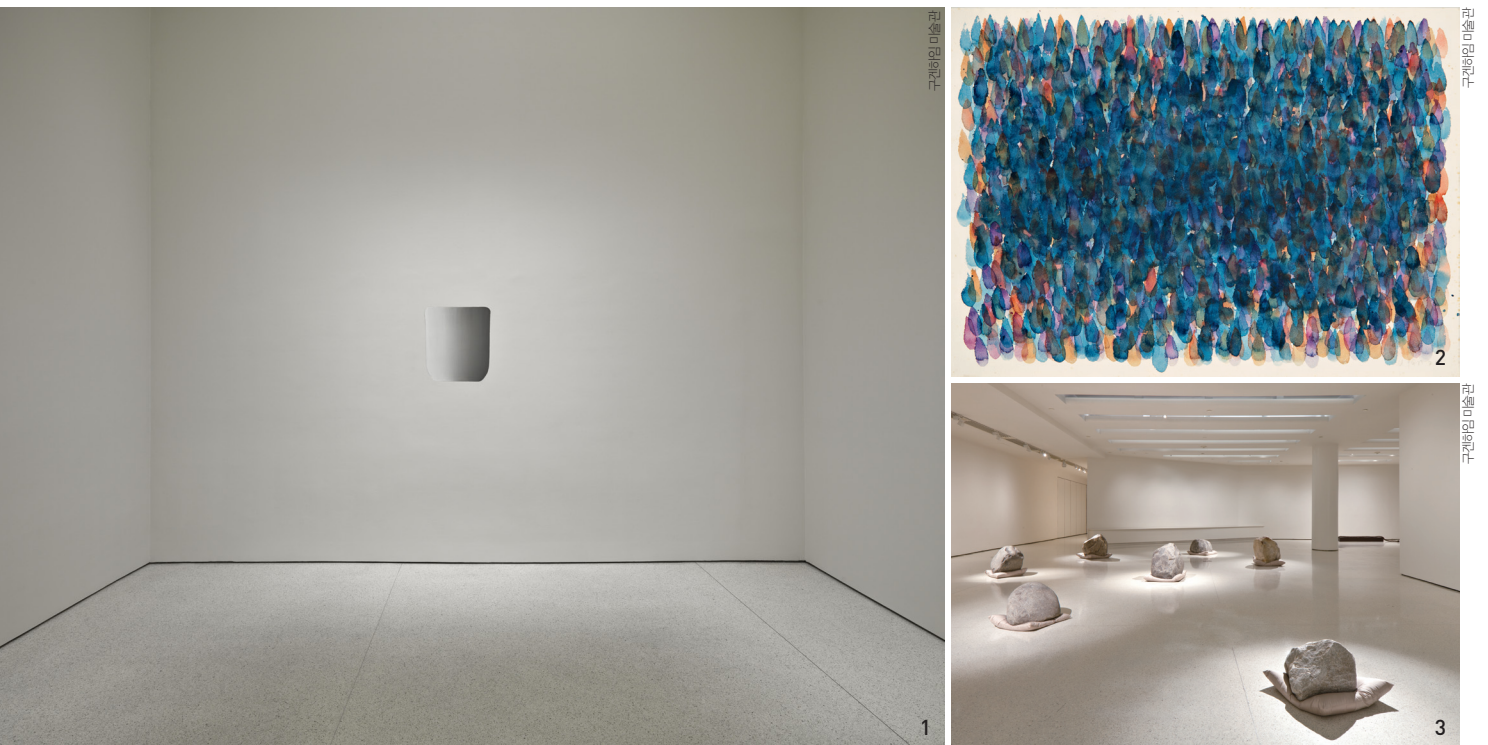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
6.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8. 주 · 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응급상황 행동요령

비상 연락처			
(국번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국번없이) **1661-2129**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19**	중앙 119 구조대	(지역번호) **131**	기상청 날씨예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서 회고전 연 원로작가 이우환

“세계 어디든 통하는 작품 만들어야”

연간 1백만명이 찾는 현대미술의 최전방,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한국의 원로 작가 이우환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2000년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의 회고전 이후 구겐하임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 작가의 전시다. 구겐하임 미술관 선임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는 “이우환은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작가 중 하나다”고 말했다.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된 이우환의 작품들. 1 〈조응〉 2 〈점에서〉 3 〈관계항〉

여느 돌밭에서 주워온 듯한 투박한 돌 두 개가 서로를 마주 본다. 그 돌 사이를 가로막는, 붉은빛 철판이 견고하다. 돌은 건너편 돌에 말 걸기를 시도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높디높은 철판에 가 닿을 뿐이다. 현재 현대미술의 최전방인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1층에 전시된 한국 작가 이우환(75·사진)의 작품 〈대화〉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옆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선 9월 28일까지 한국 미술가 이우환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이우환: 무한의 제시(Lee Ufan: Marking Infinity)〉는 2000년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의 회고전 이후 구겐하임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 작가 전시다. 전시장에서 만난 이 작가는 “내 작품은 최첨단의 시대에 빠져 있는 현실성과 구체성을 표현한다. 몸을 써서 작품을 하는 세대는 우리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화·조각·설치미술 아우르는 세계적 작가

이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생활하고 1970년대 이후 일본과 유럽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해 왔다. 회화, 조각, 설치미술을 아우르는 세계적 작가로 꼽히며 미술 평론가로도 유명하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1960년대부터 최신 작품까지, 90여

점을 선보인다. 회화 작품을 나선형 벽을 따라 걸고 사이사이 무심한 듯 돌과 금속, 솜 등으로 만든 설치작품을 배치했다.

이 전시를 기획한 구겐하임 미술관 선임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씨는 "최근 세계 미술계에서는 모더니즘의 과거를 돌아보며 비(非)미국, 비유럽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이우환은 이런 맥락에서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작가 중 하나다"고 말했다.

연간 1백만명이 찾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의 대표작이다. 나선형으로 6층까지 이어지는 흰 벽의 전시 공간은 사각의 흰 공간에 익숙한 작가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라이트는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전시물을 걸 필요가 없다"고 자평했다.

이우환 작가는 6층 건물 전체를 채우는 이번 전시를 위해 꼬박 22일을 미술관에서 보냈다. 그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사진 공간이 처음에는 두려웠다. 그러나 이 난해한 공간에 작품을 배열하다 보니 나 자신이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 모국이 한국이라는 자부심 깔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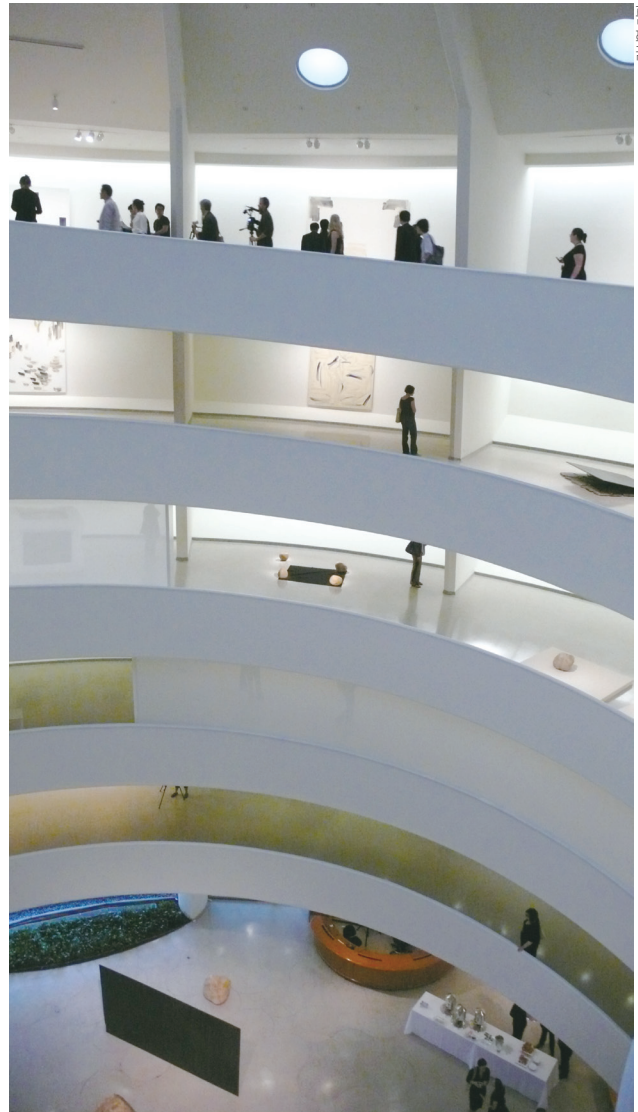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현실성' '신체' '몸'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현대 사회에 살며 현실성을 잊어 가는 관람객들이 '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설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언덕을 연상시키는 나선형 통로를 따라 오르내리도록 설계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 작가의 작품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이 작가가 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소재 중 하나는 돌. 그는 특히 전시를 하는 지역의 돌을 직접 가져다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전시를 위해서는 뉴욕주(州) 남동부 롱아일랜드의 돌을 썼다. 그가 전시를 위해 정성스레 돌을 고르는 작업을 〈뉴욕타임스〉는 한 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수십 년간 돌과 씨름하면서 이 작가는 "돌은 그 돌이 놓인 환경,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일본 돌은 세밀하고, 한국의 돌은 유연하다. 미국의 돌에 대해선 "조임이 약한, 어벙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백남준 이후 11년 만에 초대한 첫 한국 작가라는 점에 대해선 '한국인'보다 '작가'로 자신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휴대전화를 세계 곳곳에 수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과 자신이 비슷하다고도 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먼저 내세우기보단 훌륭한 제품이라는 점을 내세워야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내 모국이

김신영 기자

구겐하임 미술관 6층 건물 전체에 이우환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한국이라는 자부심이 나의 밑바탕에 분명히 깔려 있다. 그러나 나는 아프리카를 가든, 뉴욕을 가든, 서울에 가든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분청사기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왜 한국적인가'가 아니라 '왜 훌륭한가'를 설명해야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작가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굉장히 신선하고,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일이든 금방금방 해낸다. 감각을 살리기 위해 자기 역사와 세계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G

글 · 김신영 (조선일보 뉴욕특파원)

'독도 지킴이' 해경 5001함 김문홍 함장

"태풍 불어도 국민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5천 톤급인 5001함은 해경 소속 경비함 가운데 가장 큰 배다. 함장인 김문홍 함장은 25년째 바다를 지키는 바다 사나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안 남쪽 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 선원 15명을 전원 구출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주인공이다. 24시간 독도 주위를 지키는 김문홍 함장을 만났다.

해경 5001함 조타실에 선 김문홍 함장. 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 침몰선 인명구조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뤄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전진타력 2.9 우현 방파제 통과 출항요원 위 처리 후 해산"

7월 4일 오전 9시. 묵호항에서 5001함의 출항을 지휘하는 김문홍 함장(53·경정)에게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5001함은 해양경찰을 대표하는 5천 톤급 경비함이다. 길이 145.5미터, 폭 16.5미터, 최대속력 23노트, 항속거리 8천5백 마일로 유류 공급 없이도 하와이까지 다녀올 수 있다.

5001함에는 현재 김 함장 등 해양경찰관 47명이 승선해 있다. 이들은 24시간 바다 위에 떠서 주·야간 독도 경비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해난구조, 해상범죄 단속·수사, 해양오염 감시·방제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 함장은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배의 함장이 된 것은 해양경찰 조직원으로서 더없이 명예로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공복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홍 함장은 1986년에 순경으로 해상근무를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009함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말부터 5001함의 함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함장의 별명은 '중국어선 킬러'.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 실적이 우수해 붙은 별명이다. 목포해경 3009함의 함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신안군 만재도 남방 해상에서 침몰한 화물선에서 15명의 조난자 모두를 15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뤄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함장 개인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평소 호된 훈련으로 똘똘 뭉친 대원들의 팀워크가 만들어 낸 기적입니다. 당시 혹독한 추위와 악천후로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원들이 다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구조에 나갔다가 만약 사고라도 당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란 생각도 들었지요.

지난해 서해 '크리스마스의 기적' 주인공

하지만 순간순간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하다가 죽으면 명예로운 거다. 하자, 할 수 있다, 믿는다'며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인명구조를 마친 뒤 대원들이 '함장님, 이상 없이 전원구조 임무

를 마쳤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공로로 목포해경 3009함은 IMO(국제해사기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5001함은 한번 출항하면 보통 7박 8일 동안 바다 위에서 지내야 한다. 날씨가 나쁘면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하루 3교대 8시간씩 24시간 독도를 쉴 새 없이 감시한다. 가장 큰 적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영해 12마일 근방을 선회하고 돌아가는 일본순시선이다.

건조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 5001함은 마치 새 배처럼 반짝반짝 윤이 났다. 아침에 3번 점심에 2번 저녁에 3번씩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쓰레기를 줍는 함장의 철두철미함과 정비를 위해 애쓰는 5001함 해양경찰들의 노력 덕분이다.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의 '지독한 함장'

김문홍 함장은 겉보기에는 엄격해서 부하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함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실은 부하 한명 한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 김 함장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많아서 부하들이 힘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양경찰로 키우기 위해 혹독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근처의 조도에서 태어난 김 함장은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배로 통학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내게는 억세고 도전적인 섬사람 기질이 있다"고 자부하는 김문홍 함장에게도 무서운 사람은 있다. 바로 부인이다.

"직업이 해양경찰이다 보니 25년 중 절반은 가족과 떨어져 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 혼자 아흔이 되신 노환의 어머님을 봉양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제 머릿속에 늘 나라와 직장이 먼저이다 보니 아내에게 못해 준 것이 많아서 고맙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는 "집에서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많이 듣는 50점짜리 가장"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태풍이 불어도 국민이 부르면 달려간다는 각오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사는 해양경찰에게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약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기(氣)가 살아 있는 독도를 바라보며 바다를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G

글과 사진 · 전흥진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해경 5001함에서 작업 중인 해경들.

한족 출신 결혼이민자 리홍리씨 독도 체험기

"해양경찰처럼 강건하게 아이를 키우렵니다"

2011년 7월 5일 오전 9시 42분, 독도 땅을 처음 밟았다. 순간 7년 전 인천공항에 내릴 때와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7년 전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해 이곳에 정착했다. 2006년에는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았다. 대한민국의 최동쪽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그런 내가 해경경비함(5001함)을 타고 독도 탐방에 나선 것은 큰 행운이었다.

전에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면 걱정이 들곤 했다. "만약 일본이 정말 독도에 침입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 탐방을 통해 그런 걱정을 씻어 버릴 수 있었다. 1년 365일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탑승한 해경경비함 5001함은 경비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사실 해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해양경찰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일본 배가 우리나라 해양에 접근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꼭 독도를 지킬 겁니다."

경비함에 있는 동안 해양경찰관들의 이 같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해양경찰관들이 함선을 아끼는 마음이 인상적이었다. 5001함 해양경찰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함선을 수리하고 청소한다. 초여름 오후의 뜨거운 태양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은 지 9년이 지난 5001함은 여전히 새 배 같았다.

묵묵히 일하는 해양경찰관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 이들의 하루 식사비용은 1인당 5천6백50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에선 보통 밥 한 끼만 먹어도 6천원이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땀 흘리는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대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경경비함 고속단정을 타고 독도에 다다랐다. 독도를 뒤에 두고 해양경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 탐방에 나서기 전까지는 남편의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이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독도에서 만난 늠름한 해양경찰관들처럼 강건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다.

1인 창조기업으로 '황금알 사업'… 후이즈 이청종 회장

"현실에 기반한 아이템 찾으면 당신도 대박"

후이즈 이청종(43) 회장은 국내 '1인 창조기업'의 대표주자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를 다니다 사표를 내고 1999년 1인 창업에 도전했다. 이후 도메인 등록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연매출 2백50억원의 회사를 일궈냈다. 이 회장은 "1인 창업은 철저히 자신이 처한 현실에 기반해 아이디어를 낼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네이버도 삼성 출신 연구원들이 모여 만든 회사고, 다음이나 휴맥스도 연구원들이 모여 만들었죠. 진정한 1인 창조기업이라면 후이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에서 만난 후이즈 이청종(43) 회장은 1999년 자신이 창업한 회사 후이즈와 자신을 국내 1인 창조기업의 대표주자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1999년 후이즈를 창업한 이청종 회장은 국내 IT업계에서 '1인 창조기업'의 표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1999년 5년간 다니던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노트북 한 대로 정보통신(IT)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도메인 등록대행업을 기반 삼아 연매출 2백50억원의 국내 대표 IT기업을 만들어 냈다.

"창업을 구상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들어갔는데 건설현장이 체질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더욱이 회사에서는 '풀리지 않는 매듭은 끊어라'며 구조조정을 독려하던 상태였죠. 실제 30퍼센트 인력감축이 단행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 8월 무작정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창업을 구상한 겁니다."

도메인 등록사업… 연매출 2백50억 기업으로

하지만 그는 "사표를 쓴 후 막막했다"고 말한다. 4~5개월간은 백수로 지내야 했다. 꼬박 한 달간 구상한 창업 아이템만 40~50개에 달했다. 반면 수중엔 창업밑천으로 쓸 1억원도 없는 상태였다. 처자식은 없었지만 은행빚을 끼고 있어 마음만 다급했다. 건설회사 다닐 적 미국행 MBA 학비를 벌어볼 요량으로 상가투자에 나섰다가 은행 대출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창업하기 전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도메인 등록을 직접 해보니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도메인 등록을 대행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별안간 떠올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는 점. 노트북

과 전화만 있으면 해결됐다. 이후 그는 건당 4만~5만원을 받고, 도메인을 등록해 주는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하지만 1인 창조기업으로 출발은 녹록지 않았다. 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영세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촌누나의 골방에 사업장 주소를 뒀다. 대신 실제 주소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이용했다. 대신 후이즈를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OO아파트 OO동 OO호'를 'OO오피스텔 OOO-OOOO로 살짝 바꿔 사용했다.

"노트북과 전화만 있으면 되는데 따로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장을 아파트로 하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겠어요? 할 수 없이 아파트를 오피스텔로 '살짝'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대신 저희 아파트를 관할하는 우체부 아저씨한테는 "OO오피스텔로 우편물이 오면 OO아파트로 좀 가져다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죠."

하지만 1999년 엑슨모빌 도메인 사태가 터지면서 '도메인'의 개념이 일반에도 널리 알려졌다. 세계 굴지의 정유기업 엑슨은 업계 4위 모빌을 인수합병한 후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하려 했다. 하지만 관련 도메인이 인천에 사는 한국인 문모씨에게 선점돼 있던 것. 결국 엑슨모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문씨에게 10억원을 지불하고 도메인을 사들여야 했다.

웹호스팅에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업범위 다각화

이후 후이즈에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문의전화가 점점 늘었다. 도메인 관련 기사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자 사회적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도메인 등록대행업은 이씨에게 첫달 순수익 1천만원을 안겨 줬다. 첫해 6억원의 매출은 지난해 2백50억원까지 치솟았다. 1인으로 출발한 직원도 2백20명으로 늘어났다.

이청종 회장이 도메인 등록대행 사업으로 명성을 얻은 후 2백여 개에 달하는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가 우후죽순 탄생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영세성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종종 등록한 도메인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이들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현재 국내 도메인 등록시장은 후이즈와 가비아 2개 업체 정도로 재편된 상태다.

반면 이 회장은 일찍부터 웹호스팅 등으로 사업범위를 다각화해 성장동력을 늘려갔다. 웹호스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해 주는 업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초창기 홈페이지 구축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완전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한글 도메인 등록은 국내 최초다. 가령 과거 'Korea.co.kr' 처럼 영문으로 이뤄진 도메인 네임을 '코리아.한국'이란 식으로 바꿔 서비스하는 것이다. 후이즈는 오는 8월 16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한국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청종 후이즈 회장이 자신이 직접 설계해 특허까지 출원한 판촉물 '튜브'를 들고 있다.

이 회장은 올가을부터는 보안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클라우드컴퓨팅은 보안상 문제가 있어 일부 기업들이 채택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창과 방패'로 상징되던 기존의 보안개념 대신 잠수함의 침몰을 막아 주는 '격실(隔室)' 개념을 보안에 적용해 인터넷 보안사업을 벌여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옥석 가려서 창업자금 지원해야"

"1인 창조기업이라면 제 자신이 그 실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책으로만 연구하기보다는 실전경험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신이 처한 현실에 기반해 적용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호프집을 하고 있다면 호프집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정부에게도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옥석을 가려 지원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이청종 회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자금이 실패한 창업자한테도 많이 가더라"며 "창업자금만 배정하려 하면 안 되고 만약 상품이 괜찮다면 상품 생산이나 판매를 활성화할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단양팔경 중 제1경 도담삼봉. 강 가운데 3개의 암봉이 우뚝 서 있다.

단양 가족나들이

소백과 남한강 굽이굽이 만나 단양팔경 중원의 절경을 낳다

단양은 서울에서 1박 2일 코스로 여행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단양만 한 여행지가 없다. 일단 수도권에서 가깝다. 넉넉잡아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볼거리도 풍성하다.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등 단양팔경과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등은 가족 답사여행코스로 손색없다. 대명콘도 아쿠아월드도 있어 신나는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단양시내에서 고수대교를 지나 59번 국도를 타고 가다 595번 도로로 갈아타면 온달관광지다. 온달산성, 드라마세트장 등이 모여 있다. 드라마세트장에 들어서면 TV에서 자주 접하던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 '천추태후' '근초고왕' 등을 촬영했다. 영화 '쌍화점'도 이곳에서 찍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아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며 사진 찍기에 좋다.

세트장 구경 후에는 온달산성으로 가보자. 온달산성까지의 거리는 약 1킬로미터, 왕복 1시간 남짓 걸린다. 온달산성은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을 탈환하기 위해 성산(4백27미터)에 쌓은 길이 6백82미터의 반월형 석성으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로 잘 알려진 고구려 명장 온달 장군의 이야기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따르면 평원왕의 사위였던 온달은 신라에 빼앗긴 남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590년(영양왕 1년) '계립령과 죽령 서쪽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며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아단성에서 신라군의 화살에 목숨을 잃는다.

남한강 상류와 절벽을 끼고 해발 4백27미터의 산 정상에 축조된 성벽은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지형을 따라 완만하게 휜 곡선 부분의 조형미도 뛰어나다.

고구려 온달 장군의 숨결이 담긴 온달산성

성은 납작하고 반듯한 돌을 수직으로 쌓아올렸다. 나무계단을 거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에 서면 빼어난 주위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밑으로 동강과 서강으로 나뉘었다가 단양에서 합쳐진 남한강이 꿈틀거리는 용 모양으로 굽이쳐 흐른다. 첩첩이 이어진 소백산맥 능선이 물결친다.

단양 가서 단양팔경 구경을 빼놓을 수 없는 일.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도담삼봉이다. 단양팔경 중 제1경으로 일컬어진다. 강 가운데 조각배처럼 떠 있는 3개의 암봉 중 가운데 봉우리에 정자 하나가 걸터앉아 있다.

새벽이면 어부들이 그물을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서정적이다. 봉우리에 앉아 물고기를 노리는 백로와 왜가리의 모습도 평화롭다. "강원도 정선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 내려와 지금의 도담삼봉이 됐다"는 전설도 전하는데 개국공신 정도전은 자신의 호인 삼봉을 여기서 따왔을 정도로 도담삼봉을 좋아했다고 한다.

퇴계 선생도 도담삼봉에 들렀다가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석양의 도담삼봉엔 저녁놀 드리웠네/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 적에/별빛 달빛 아래 금빛파도 너울지더라'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온달관광지' 세트장. 드라마 '연개소문' 등을 촬영했던 곳이다.

온달산성. 멀리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이 보인다.

도담삼봉 관광지 왼편에는 팔각정으로 오르는 길이 있는데 팔각정에서 등산로를 따라 2백 미터 정도 가면 웅장한 석문을 만날 수 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산속의 육교'다. 석문 역시 단양팔경의 하나다. 단양팔경 제5경인 사인암도 접근하기가 쉽다.

명경지수 위로 솟아오른 70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는 2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위엄 그대로다. 조선 최고의 화원으로 불리는 단원 김홍도도 사인암을 화폭에 담으려 붓을 잡았다가 1년여를 고민했다고 한다.

사인암 앞 계곡은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 여름철이면 물놀이를

도담삼봉 위쪽에 자리한 석문.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산속의 육교'다.

장회나루에서 바라다본 충주호. 유람선을 타면 보다 가까이에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즐기러 온 피서객들로 붐빈다. 옛사람들은 이 계곡을 일러 운선구곡 혹은 운암구곡이라고 했는데 깎아지른 듯한 바위 아래에서 즐기는 물놀이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충주호 드라이브 · 구인사 순례도 매력적

충주호 유람선을 타면 단양팔경 중 구담봉과 옥순봉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유람선 탑승 시간은 왕복 약 1시간 30분 정도다. 퇴계는 구담봉을 두고 '구담을 지나는 새벽 달은 산에 걸려 있어/그곳을 상상하니 뵐동말동 아득하이/주인은 이제 와서 다른 곳에 숨었으니/학과 잔나비 울고 구름만 한가하네'라고 읊었다.

제4경인 옥순봉은 희고 푸른빛을 띤 바위들이 힘차게 솟아 마치 대나무싹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두향은 퇴계에게 옥순봉을 단양에 속하게 해달라는 청을 넣었다. 하지만 청풍부사가 거절하자 퇴계는 석벽에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는 글을 새겨 단양의 관문으로 정했다는 사연이 전해진다.

구인사는 천태종의 총본산. 전국에 1백40개나 되는 절을 관장하는 대찰이다. 소백산 국망봉을 중심으로 장엄하게 늘어선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연화봉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상월원각 스님이 1945년에 이곳에 손수 칡덩굴을 얽어 삼간초암을 지은 것이 시작이다.

구인사에 처음 들어선 여행객은 가람의 웅대함에 놀란다. 3~5층의 현대식 건물의 대가람이 길 양편으로 늘어서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층 대법당을 비롯해 설선당, 인광당, 장문실, 향적당, 도향당 등 50여 동의 건물들이 경내를 꽉 메우고 있다. 1만여 명이 취사할 수 있는 규모다.

단양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타 지역과의 연계 관광 코스를 짜기 쉽다는 것. 충주, 제천과 지척이라 충주호 드라이브, 청풍문화재단지 등을 일정에 넣어 코스를 구성할 수도 있고 풍기·영주의 부석

천동동굴은 걷는 동안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이 곳곳에 있다.

워터파크 대명리조트 아쿠아월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겨 찾는다.

사, 희방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과 함께 일정을 구성해도 된다. 두 곳 모두 단양을 기점으로 삼을 때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워터파크 · 동굴관람도 가족나들이의 즐거움

아이들과 함께라면 단양 대명리조트 아쿠아월드가 있다. 지중해풍 워터파크로 대규모 바데풀이 있다. 채광이 잘 되는 유리천장 아래, 풀장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와 야자수나무 장식들이 이국적이다. 지하 7백50미터 암반에서 끌어올리는 천연탄산수를 사용한다. 한 번 들어간 아이들은 물놀이하는 재미에 좀처럼 나올 줄 모른다. 시간이 난다면 동굴에도 가보자.

단양에는 온달, 노동, 천동, 고수 등 동굴이 많다. 천동동굴의 총 관람 소요시간은 20여 분. 길이 비좁고 때로는 오리걸음으로 걸어야 하는 구간도 있어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IC로 나오면 된다.

잠잘 곳 단양읍내에 **대명리조트**(043-420-8311)와 청풍호 주변에 **청풍리조트**(043-640-7000)가 있다. 도담삼봉 관광지 주변으로 여관과 모텔도 많다.

먹을 곳 **장다리식당**(043-423-6660)은 단양의 특산물인 육쪽마늘을 재료로 한 음식을 낸다. 흑미, 찹쌀, 마늘, 밤, 대추, 은행, 콩, 팥, 고구마 등을 넣고 가마솥밥을 지어낸다. 달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난다. 솥밥 외에도 마늘튀김 등 마늘을 재료로 한 반찬 20가지가 오른다. **경주식당**(043-423-0504)의 올갱잇국도 맛있다. 올갱이를 삶아낸 푸르스름한 국물에 집에서 담근 된장을 풀고, 올갱이 속살과 함께 근대, 아욱, 배추 등을 넣고 푹 끓여낸다. **제천묵마을**(042-647-5090)의 묵도 유명하다. 박달재에서 자생하는 도토리로 만든다. 인기 메뉴는 채묵밥. 가늘게 채 썬 묵에 양념한 육수를 붓고 따끈한 밥을 말아 먹는다.

답답한 코와 귀,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다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지역에서나 답답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하루 종일 비슷한 자세로 일하면서 몸도 굳어지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건조한 사무환경과 함께 우리 몸이 억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자유시간도 넉넉하다면 밖으로 나가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

업무 중 책상에 앉아, 혹은 자리 옆에 서서 간단한 동작을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도 씻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동시에 신체의 특정부위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이물감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 코와 귀가 시원하면 얼굴은 물론, 인체의 연결부위인 위장도 튼튼해져 몸 전체의 생기를 찾을 수 있다. 또 가슴 스트레칭을 통해 가슴속을 확 풀어주는 태극권의 몇 가지 기초동작과 마사지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 보자. G

얼굴 중심부인 코와 귀를 개운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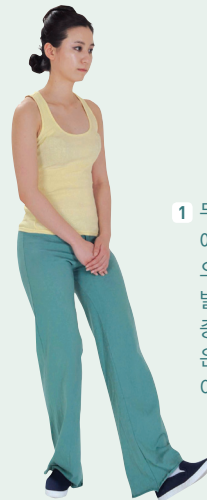
답답한 코와 귀를 가볍게 마사지함으로써 시원하게 뚫어 주면 감기와 알레르기, 코막힘 비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귀를 자극하면 청각을 증진시키고 기억력도 좋아지며 위장이 튼튼해지는 효과도 있다.

1 양손 장지 끝의 지문 부위로 양쪽 콧날 부위를 위아래로 가볍게 36회 문지른다. 콧대와 코끝, 콧방울도 그렇게 안마하면 좋다.

2 엄지와 검지로 귓바퀴를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눌렀다 놨다 하며 9회 지압하고 귓불을 가볍게 3회 잡아당긴다.

3 귓구멍이 가려지게 양쪽 귀를 앞쪽으로 접고 검지를 장지 위에 올렸다 튕겨내림을 36회 반복한다. 울림의 소리가 생기도록 강하게 한다.

편안한 가슴, 폐활량이 넉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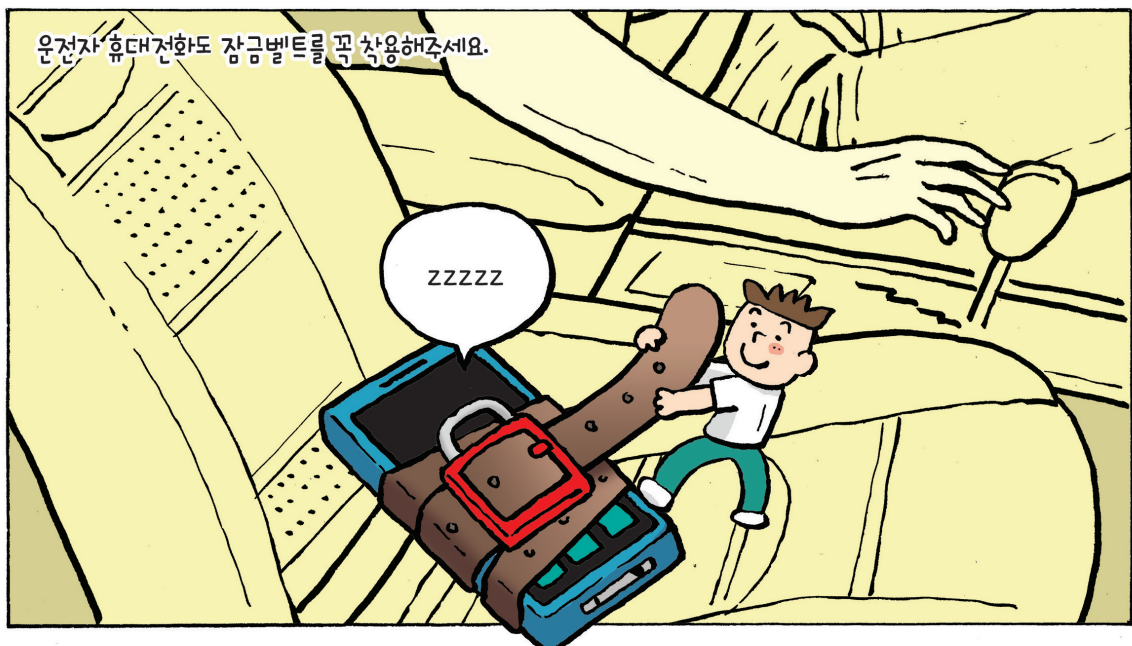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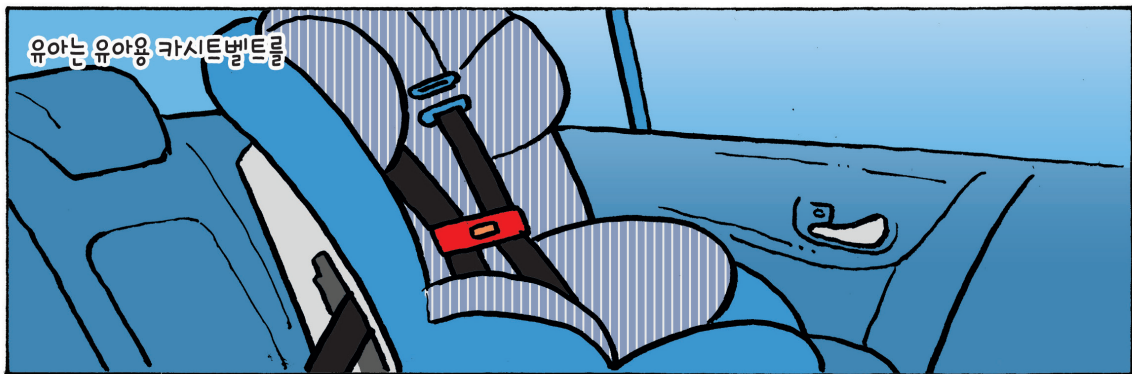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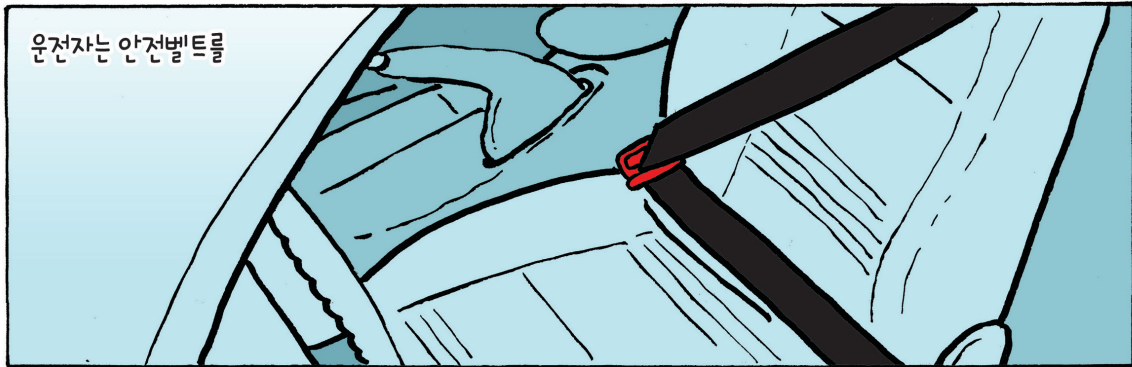
몸을 추스르는 건신12단금 중 '봉황전시증폐기' 즉 가슴을 봉황처럼 펼쳐 폐활량을 늘리는 동작으로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1 두 발을 모아 선 자세에서 왼쪽 45도 방향으로 왼발을 내딛어 발뒤꿈치로 딛고 선다. 중심은 오른발, 양손은 편안하게 내려뜨려 아랫배 밑에 포갠다.

2 숨을 들이쉬며 중심을 왼발로 옮기면서 왼쪽 발끝은 내려딛고 오른발 뒤꿈치는 들면서 새가 날개를 펼치듯 양팔을 펼쳐 가슴을 활짝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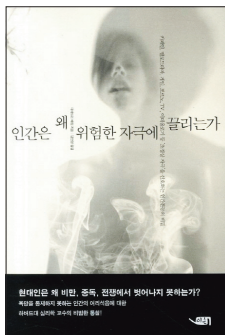
3 원래 자세로 돌아와 사진①의 자세가 된다. 이를 6회 반복하고, 방향을 바꿔 6회 실시한다.

자료 및 사진 《30분 태극권》 동아E&D

안전벨트 3종 세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뉴욕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벌금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잠시 뒤로 미뤄주세요.

〈인간은 왜 위험한 자극에 끌리는가〉

중독과 집착의 뿌리를 찾다

디어드리 배릿 지음
이순 펴냄 · 1만3천8백원

동물 세계를 관찰하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타투어라는 관상용 열대어가 있다. 이 물고기는 수족관 벽에 거울을 갖다 대면, 무지개빛깔의 화려한 수컷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침입자로 알고 열심히 공격한다. 수컷 제비의 가슴은 밝은 갈색인데, 암컷 제비는 상대적으로 가슴털이 짙은 수컷을 고른다. 관찰자가 매직펜으로, 퇴짜 맞은 수컷의 가슴을 짙은 색으로 만들어 주면 금세 암컷들이 달려들어 짝짓기를 하려고 줄은 선다.

이런 예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가시고기다. 이 물고기는 아랫배가 화사한 빨간색인 수컷들은 영역을 방어하고, 그 한가운데 둥지를 짓는다. 다른 수컷이 영역을 침범할라치면 가차 없이 공격하지만, 암컷이 들어오면 둥지로 유인해 알을 낳게 한다. 실험자들이 큰가시고기를 수족관에 넣고 관찰했는데, 같은 행동을 보였다.

이에 새로운 실험을 했다. 죽은 물고기를 철사에 매달아 수족관을 헤엄치게 했고, 다음에는 나무로 만든 모형을 이용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다. 죽은 물고기든 나무 모형 물고기든 수컷들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랫배의 빨간색이었다. 그러니까 실제 물고기라도 아랫배가 빨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았고, 물고기처럼 생기지 않은 나무 모형의 아래에 빨간색을 칠해 놓으면 맹렬하게 공격했다. 심지어 창문 옆에 있던 수족관의 수컷들은 빨간 우체국 트럭이 지나가도 공격태세에 돌입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간은 왜 위험한 자극에 끌리는가〉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인류가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우선 동물관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초정상자극이라 한단다. 노벨상 수상자인 니코 틴버겐은 동물의 본능을 진화시킨 원래의 실물보다 실험자가 만든 모조품이 그 본능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이런 용어를 붙였다.

지은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동물들이 초정상자극과 마주치는 것은 실험자들이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줄 때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초정상자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본능의 명령에 따라 무익한 흥밋거리를 만들어낸다. 이 책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패스트푸트, 게임, 포르노, 텔레비전, 이데올로기 등이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비정상적인 선호를 들 수 있다. 기름진 음식, 설탕, 소금으로 상징되는 이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아프리카 사바나서 우리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구를 진화시켰다. 그런 물질들이 희소했고,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는 것이 생존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는 바로 그런 본능을 자극하는 모형인 셈이다.

모조품이 실물보다 더 강하게 본능 자극

여기서 알 수 있듯 초정상자극에 인류가 반응하는 전제가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현대적인 두개골에 석기시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인간은 멍청한 게 아니라, 단지 낡은 본능을 따르는 경향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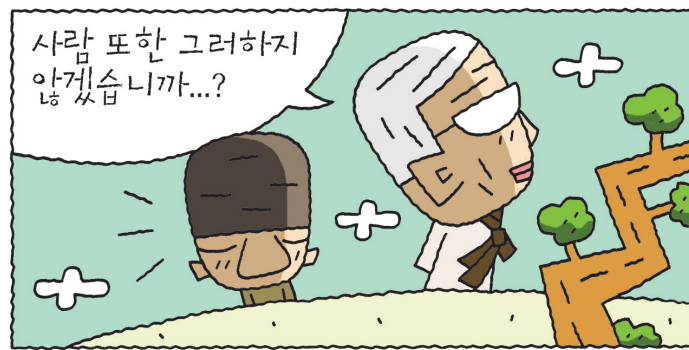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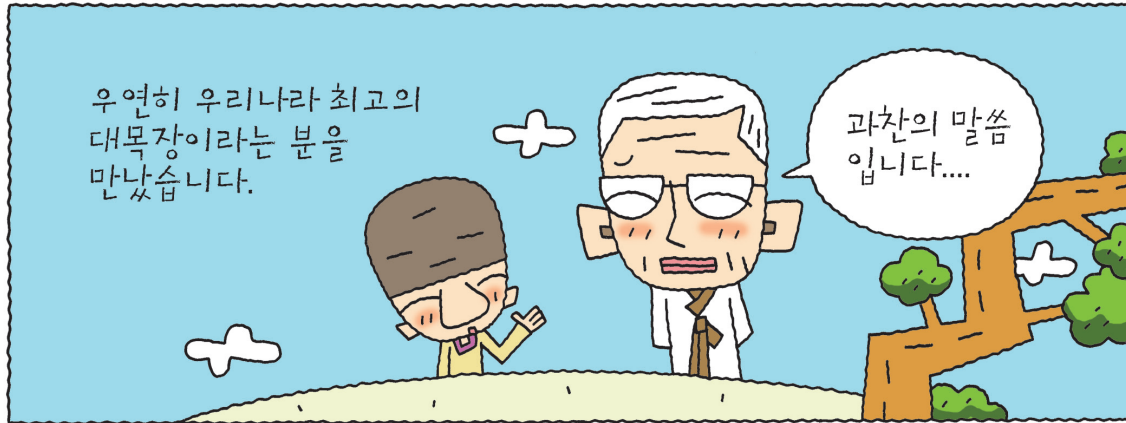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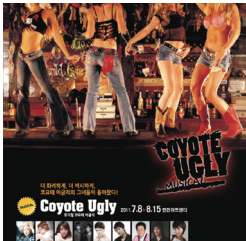
초정상자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중독과 집착증세를 낳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다. 이 책을 쓴 지은이의 의도도 상황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각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초정상자극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극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의지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훈련을 통해 충분히 습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지은이의 말을 곱씹어 보면 될 성싶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대부분의 위기들은 '평범한 것을 낯설어 보이게 만드는 것'에 그 열쇠가 있다. 우리는 '이런, 내가 물방울무늬가 그려진 석고알을 품고 있잖아'라고 자각하고, 알 위에서 내려올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좋은 나무 알아보는 비법

글과 그림 · 최영순

바다의 무서운 폭풍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육지에 앉아만 있어 가지고는 절대 훌륭한 선장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참된 용기는 인생의 가장 곤란한,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였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 다니엘(프랑스의 선교사)

뮤지컬 **코요테 어글리** 개봉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미국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코요테 어글리〉가 무대에 올랐다. 시골소녀가 열심히 노력해 뉴욕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 뮤지컬은 영화에서처럼 '쇼'적인 부분을 강조해 흥겹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아이돌 그룹 f(x)의 루나가 여주인공 '바이올렛' 역을 맡았다.

일시 8월 15일까지 **장소** 한전아트센터 **관람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의** 1577-1876

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시와 포스코가 주관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 8회를 맞는다. '세상의 불과 빛, 포항에서 춤추다'라는 슬로건의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꽃쇼뿐 아니라 연극, 무대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 축제공연과 뮤직 불꽃 쇼로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해변 가요제와 국내 연화업체의 프린지 페스티벌, 한여름 밤의 콘서트, 2012 풍등띄우기 행사 등이 준비돼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국제 불꽃 경연대회에서는 포르투갈, 중국, 호주, 한국이 2시간 동안 약 8만 발을 쏘아 올리는 박진감을 줄 예정이다.

일시 7월 28~31일 **장소** 포항 북부해수욕장, 형산강 체육공원, 시내일원 **문의** 054-270-2253

전시 **2011 Hi Dino 공룡엑스포** 일산 킨텍스 제2홀에서 열리는 2011 Hi Dino 공룡엑스포에서는 중국의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인 자공공룡박물관, 중경자연박물관, 내몽고박물원의 국보급 소장품들이 최초로 연합 전시된다. 공룡의 출연과 멸종 그리고 지구 생명의 탄생과 진화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테마전시로 체계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구성돼 있다. 가장 목이 긴 공룡으로 알려진 '마멘치사우루스', 세계에서 두 마리 화석밖에 없는 '주첸고사우루스'의 진품을 확보해 전시하고 있다.

일시 8월 18일까지 **장소** 일산 킨텍스 제2홀 **관람료** 대인 1만5천원 소인 1만3천원 **문의** 1577-6190

구미오페라단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오페라로 새롭게 태어나 무대에 오른다.

강원도 민요가락 속에 흐드러진 메밀꽃 들판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

서정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오페라로 다시 태어난다. 구미오페라단(단장 박영국)은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을 무대에 올린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연과 매년 수준 높은 오페라를 개최해 온 구미오페라단은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더불어 수준 높은 고급문화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해 온 팀이다. 특히 한국적인 창작오페라를 많이 만들어온 곳으로 유명하다.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은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창작부문 금상을 받은 작품으로 한국서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다. 탁계석 대본, 우종억 작곡으로 한국 서정미학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다. 평창을 배경으로 한 이번 공연은 한국 오페라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하는 무대다.

오페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봉평 장이 서는 장터 주막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생 떠돌이로 이 장터 저 장터를 옮겨가는 허생원과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한패가 되어 떠도는 동이, 그리고 조선달의 모습을 그린다. G

일시 7월 21~24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 25만원 VIP 15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문의** 054-453-9926

'정트리오' 정명화·정경화 자매

평창서 7년 만에 한 무대

〈대관령국제음악제〉

정트리오의 정명화·정경화 자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의 하나인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공동 예술감독이 돼 고국 팬 앞에 선다.

두 자매와 카리네 게오르기안(첼로), 리처드 스톨츠만(클라리넷), 로베르토 디아즈(비올라)를 비롯해 떠오르는 젊은 연주자인 손열음, 김태형(이상 피아노), 신현수(바이올린) 등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 45명이 향연을 벌인다.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루미네이션(빛이 되어)'을 주제로 열린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를 비롯한 강원도 일원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정 자매가 예술감독을 맡아 더욱 관심이 높은 이번 음악제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저명 연주가 시리즈' 티켓 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1~2일 안에 모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저명 연주가 시리즈' 외에도 강원도 내 곳곳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강원도민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진정한 클래식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는 저명 연주가와 교수진이 다양한 국적의 뛰어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열린 강의 '마스터 클래스', 세계적인 음악가와 예술계 리더들이 시사와 음악에 관련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좌담회 '음악가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G

글·김선영 인턴기자

일시 7월 24일~8월 13일 **장소**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와 도내 시군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문의** 02-725-3394~5

강원문화재단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음악제로 자리잡고 있다.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늑대의 유혹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10월 30일까지	02-738-8289
잭더리퍼	충무아트홀 대극장	8월 14일까지	02-764-7858~9
삼총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7월 31일까지	02-764-7858~9
폴링포이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7월 26일 ~ 9월 11일	02-501-7888
연극			
쉬반의 신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7월 22일 ~ 8월 10일	02-2234-4036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까망소극장	8월 28일까지	02-3672-8868
유츄프라카치아	북촌아트홀	9월 3일까지	02-988-2258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7월 19~20일	02-2280-4114
콘서트			
이승환 the Regrets 바캉스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	8월 6일	02-747-1252
김광민, 이병우, 윤상 Play with Us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8월 5~6일	02-3485-8700
클래식			
P&PF 임동력 피아노 리사이틀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 대극장	8월 14일	031-230-2440~2
소리울 앙상블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7월 23일	02-515-5123
오페라 / 무용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7월 24일까지	02-2280-4114
춤으로 그리는 제사	서울남산국악당	7월 24일	02-2263-4680

7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7월 3일~7월 9일

곡명	가수
1 바람났어(Feat. 박봄)	GG
2 압구정 날라리	처진 달팽이
3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닷길
4 흔들어 주세요	철싸
5 순정마초	파리돼지앵
6 정주나요	스윗 콧소로우
7 죽을래 사귈래	센치한 하하
8 Roly-Poly	티아라
9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10 말하는 대로	처진 달팽이

고지혈증 약 복용시간 “그때그때 달라요”

약물성분 따라 저녁, 식후, 식전 등 꼭 지켜야

50대 주부 김용자씨. 10년 째 남편의 가게 일을 돕는 틈틈이 테니스로 몸을 단련해 아침잠 떨쳐내기가 가뿐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10월 병원을 찾았다가 ‘이상지질혈증으로 신장질환 의심’이란 진단을 받았다.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이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는 상태다. 심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혈관을 막아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비만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92만여명(2009년 말 기준)에 이른다. 이는 2005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특히 여성의 경우 40대에서 50대로 접어들면서 환자 수가 평균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지혈증의 주범인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50세를 전후해 중단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련 책자 무료로 배포

이처럼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지혈증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 주는 책자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시간 확인하세요〉를 발간했다.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뿐 아니라 고지혈증의 증상과 원인, 복잡한 의학 용어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안내돼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약물 성분에 따라 ‘스타딘계’와 ‘피브레이트계’로 나뉘며, 각각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달라 복용시간을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타딘계 약물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각은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따라서 스타딘계 약물(심바스타딘, 플루바스타딘, 로바스타딘)은 저녁에 복용해야 좋다. 다만, 같은 스타딘계지만 약효 시간이 긴 아토르바스타딘, 로수바스타딘제제 및 심바스타딘서방정은 아무 때나 복용해도 된다.

스타딘계 약물은 무좀약과 같이 먹게 되면 근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 간 충돌이나 중복 투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약국, 병원에서는 약물조제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운영하고 있다.

피브레이트계 약물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하는데, 음식물과 만나면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페노피브레이트는 식사 직후, 겜피브로질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복용해야 한다.

이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온라인 복약정보방(medication.kfda.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온라인 복약정보방 medication.kfda.go.kr
이지드럭 ezdrug.kfda.go.kr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별 복용 안내

	복용 시간	해당 성분	유의점
스타딘계	저녁 시간 (식사와 무관)	심바스타딘, 플루바스타딘, 로바스타딘	무좀약과 함께 복용 시 근육 장애 발생 우려
	하루 중 아무 때나 (식사와 무관)	아토르바스타딘, 로수바스타딘제, 심바스타틴서방정	
피브레이트계	식사 30분 전	겜피브로질	
	식사 직후	페노피브레이트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청

사이버에서 만나는,
올바른 독서생활 길잡이!

사이버 독서아카데미 수강 안내

교육과정

교육과정		차시	강사
자녀독서교육과정 I (영 · 유아 중심)	책으로 놀아요!	5	이송은(동화가 있는 집 연구소장)
	책으로 배우고 표현해요	4	허정숙(동화구연가)
자녀독서교육과정 II (아동 · 청소년 중심)	책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6	김영자(호원대 겸임교수)
	초등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	7	신현숙(한국언어사고개발원 부원장)
	문학작품을 통한 생각 길러주기	7	강병혁(아주대평생교육원 논술지도강사)
자녀독서교육 실용과정	우리자녀 사회성 기르기	8	이임숙(맑은숲독서치료연구소 소장)
	특수아동을 위한 독서활동	6	송영순(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기획특강	자원봉사의 이해	4	한영진(초등학교 교사)
	자기 성장과 계발을 위한 책읽기	4	김현숙(성신여대 국문과 강사)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아동 · 청소년 독서지도	6	오선경(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독서	6	김슬옹(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북아트(Book Art)	–	12	박정아(즐거운책만들기교실 대표)
지역독서운동가	작은도서관 운영의 이론적 배경	6	박소희(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표)
	작은도서관 운영의 실제	6	정봉남(광주아이숲어린이도서관 대표)

- 수강신청 기간 상시
- 수 강 인 원 제한 없음
- 교 육 비 무료
- 신 청 방 법 인터넷 접수(www.edu-kpec.or.kr)
- 운 영 방 법 ◎ 연중 교육생 모집
  ◎ 교육과정별 수강신청 접수 / 1인 전과정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즉시 해당강좌 수강 / 기간제한 없이 80%이상 수강시 이수증 발급
  ◎ 자세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아카데미」로 연락 주십시오.

TEL. 02-3153-2791~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8. 27 ~ 9. 4 대구스타디움 www.daegu2011.org

대한민국 대구에서 전세계 65억 인구의 감동이 시작됩니다!

● 입장권 구매(예매)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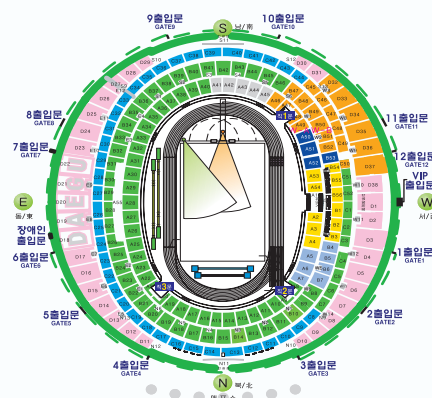
- 인터넷 : 인터파크(sports.interpark.com/1544-1555), 조직위(www.daegu2011.org/053-803-9264)
- 직접 판매처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 대구시청 및 구 · 군청 민원실, GS25편의점(ATM기 설치업소)

● 입장권 가격

(단위 : 원)

구 분	프리미어		A석	B석	C석	비 고
	F석	S석				
개회식 입장권	150,000	120,000	50,000	40,000	20,000	첫날 저녁경기 포함
오 전 입 장 권	30,000	30,000	20,000	10,000	-	
저 녁 입 장 권	100,000	80,000	40,000	20,000	-	
일 일 입 장 권	125,000	105,000	55,000	25,000	-	
시 즌 입 장 권	850,000	700,000	300,000	200,000	-	전경기 입장

※ 조기예매(2011. 3. 31까지) 10%, 어린이(12세이하) 30%, 장애 · 경로 · 국가유공자 50%, 단체(50명이상) 30% 할인, 꿈나무 및 대학생 프로그램(초·중·고, 대학교)참여학교는 별도할인 단, 개회식, 프리미어석, 시즌석 입장권은 할인 되지 않으며, 중복할인 불가

● 입장권 좌석 배치도

구 분	좌석등급	
(노랑)	VVIP석, VIP석	
(주황)	미디어석	
(회색)	선수석	
(남색)	프리미어	F석
(하늘)		S석
(초록)	A석	
(파랑)	B석	
(분홍)	C석	

F : 결승선 S : 출발선 ※ C석은 개회식에만 해당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식파트너